

향가 해독 100년의 연구사 및 전망

- 향찰 체계의 인식과 古語의 발굴 정도를 중심으로 -

박재민*

차 례

1. 서론
 2. 연구 대상과 방법
 3. 1920·30년대의 해독 : 소창진평의 연구
 4. 1940년대의 해독 : 양주동의 연구
 5. 1950-1980년대
 6. 1990년대 이후와 해독의 전망
 7. 결론을 대신하여
- 참고문헌
-

<국문초록>

본고는 향가의 해독이 진행된 100년의 과정을 두 방향에서 살핀 결과물이다. 그 방향은, 하나는 향찰 체계의 인식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휘의 발굴 정도에 대한 것이었다. 1910년대 후반부터 일본학자들에 의해 원리가 파악되었던 향찰 체계는, 양주동에 의해 의미를 지니는 '義字'와 소리값을 위해 사용되는 '借字'로 대별되었다. 이 체계는 실상을 정확히 통찰한 것으로 우리 학계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고 평할 수 있다. 한편 1970년대의 몇 학자들에 의해 이 체계는 적용의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 그 혼란은 아직도 말끔히 가지지 않고 있다.

고문헌의 섭렵을 통한 어휘의 발굴 정도도 검토했다. 향가 해독의 선편을 잡은 소창진평은 어휘의 발굴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를 어절별로 확인해 보면 전체 어절 715개 중 514개의 어휘를 발굴한 것이 확인된다. 이는 비율로 보자면 70% 가량에 달하는 수치이다. 양주동은 자료 발굴의 문헌 범주를 대폭 확대하며 해독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568개 어절의 古語를 확보하였으니, 文證率은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부교수

1990년 이후 행해진 연구 동향 및 미래 전망을 소개하며 결론을 대신하였다. 소창진평과 양주동의 저술에서 만족스럽게 해독되지 못했던 어휘는 총 160어절 가량이 된다. 그리고 50~80년대, 그리고 90년대를 거치면서 몇몇 어휘는 훌륭하게 해명되었는데 그러한 약 60개의 어절을 제외하면, 皆理米〈그리며(?)〉, 모죽지랑가 제1구〉, 古召跡〈고초며(?)〉, 도천수대비가 제1구〉 丘物叱〈구물거리며(?)〉, 향순중생가 제5구〉 등의 미해결된 어절들을 얻게 된다. 이 어절들은 모두 101개인데 이 어절들이 바로 아직 우리의 해독의 손길을 기다리는 미지의 어휘들의 전체 모습이다.

주제어 : 향가, 향찰, 소창진평(小倉進平), 금택장삼랑(金澤庄三郎), 점패방지진(鮎貝房之進), 양주동, 의자(義字), 차자(借字), 정용자(正用字), 차용자(借用字)

1. 서론

1918년 金澤庄三郎이 『朝鮮彙報』 4월호에 〈處容歌〉의 해독¹⁾을 발표한 이래, 향가는 한국 문학의 가장 매력 있는 장르 중 하나로 자리해 왔다. 1000년 전 신라인의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 그 당시의 언어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 또 난해한 문자의 틈 사이로 신라인의 생활과 문화가 얼핏얼핏 보인다는 즐거움에서 향가는 우리의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아 왔다. 그리하여 25수라는 적은 편수에도 불구하고 1500여 편²⁾ 이상의 논의가 집중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집중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향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모호한 이미지의 장르로 남아 있다. 그 까닭은 작품의 생성 시기와 현대와의 거리감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주된 원인은 향가의 표기 수단인 향찰 표기에 대해 가진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향가에

1) 金澤庄三郎, 『吏讀の研究』, 『朝鮮彙報』, 조선총독부, 1918년 4월호.

2) 화경고전문학연구회 편, 『향가·고전소설관계 논저목록』, 황폐강교수 정년퇴임기념, 단대출판부, 1993.

는 늘 비슷한 이미지의 평가가 있어 왔던 것이다.

도대체 향가 해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문학적 분석이 가능하겠는가.³⁾

解讀을 읽어 보면 말이 씨가 먹지 않고 뜻이 一脈貫通되지 않는 데가 많아서 마치 現代의 怪物인 모더니즘의 詩를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일으키느니 이것은 그 解讀에 誤謬가 많다는 것을 그 解讀 自体가 證左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

비록 지나간 시대의 평가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인식되어 있는 듯하다. 필자 또한 향가 해독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점에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비록 향가의 해독이 아직은 가야 할 길이면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위의 언급 “모더니즘 詩를 연상시킬 만큼”의 괴로운 수준인가라는 의문도 함께 든다. 가령, 균여 향가의 첫 머리에 놓여 있는 다음 작품을 놓고 볼 때, 이 작품의 해독 결과가 그렇게까지 이해하기 어렵거나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할 정도인가라는 강한 의구가 드는 것이다.

心 ^{마슴未^미 筆^분留^{으로}}	무수미 부드로	마음의 붓으로
慕 ^{그리} 呂 ^{白^습乎^오隱^니 仏^{부터}體^앞衣^이}	그리습은 부터 알피	그린 부처님 앞에
拜 ^절 內 ^습 乎 ^오 隱 ^니 身 ^몸 萬 ^만 隱 ^니	저습은 모만	절하는 몸은
法 ^법 界 ^계 毛 ^모 吽 ^우 所 ^소 只 ^도 至 ^지 尼 ^니 去 ^거 良 ^라	法 ^법 界 ^계 못 ^도 록 ^니 르 ^거 라	법계 두루 이르구나.
塵 ^딘 塵 ^딘 馬 ^마 洛 ^락 佛 ^{부터} 體 ^체 刹 ^찰 亦 ^여	塵 ^딘 塵 ^딘 마 ^라 부 ^터 쇠 ^여	티끌마다 부처 세계여
刹 ^찰 刹 ^찰 每 ^매 如 ^다 邀 ^모 里 ^리 白 ^습 乎 ^오 隱 ^니	刹 ^찰 刹 ^찰 마 ^다 모 ^리 습 ^은	세계마다 모시온
法 ^법 界 ^계 滿 ^츠 賜 ^시 隱 ^니 佛 ^{부터} 體 ^체	法 ^법 界 ^계 차 ^신 부 ^터	법계 차신 부처님
九 ^구 世 ^세 盡 ^다 良 ^아 禮 ^례 爲 ^호 白 ^습 齊 ^겨	九 ^구 世 ^세 다 ^아 禮 ^호 습 ^겨	구세 다하도록 예하고저.
歎 ^아 曰 ^아 身 ^신 語 ^어 意 ^의 業 ^업 无 ^없 疲 ^없 厭 ^없	아 身 ^신 語 ^어 意 ^의 業 ^업 无 ^없 疲 ^없 厭 ^없	아 신어의업 싫증 없이
此 ^이 良 ^아 夫 ^부 作 ^작 沙 ^사 毛 ^모 吽 ^우 等 ^등 耶 ^야	이 브 ^질 사 ^모 우 ^야	이에 변함없음 삼도다.

<균여전, 보현1(예경제불가)>⁵⁾

3) 장덕순의 질의(정병욱, 『증보판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83, 94~95면.).

4) 이탁, 「향가신해독」 서문, 『한글』 116, 한글학회, 1956, 446면.

그렇다면, 향가의 해독에 대한 불신은 어쩌면 향가 해독의 결과 자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초기 향가 해독의 어려웠던 사정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이 되풀이된 결과라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본고는 이렇듯 구체성 없이 인상 비평에 의해 평가되고 있는 향가 해독의 성취 정도를, 보다 뚜렷한 기준을 세워 가늠해보기 위해 집필되었다. 향가 연구의 초창기에서 어떤 작업이 있었고, 이것이 그 후 어떻게 완성도를 높여 나갔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향가가 해독되어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대별로 향가 연구서를 논하되, 두 가지 영역의 기술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하나는 향가에 쓰인 문자 체계를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다른 하나는 얼마나 많은 古語를 확보하여 해독을 진행하였는가가 그것이다. 정확한 문법 지식과 다양한 어휘의 확보는 언어를 이해하는 두 개의 버리(綱)가 될 만하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본고는 우선 시기를 크게 넷으로 나누어 고찰하려 한다. 각 시기에 저술된 목록을 요약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연도	저자	서명	출판
20-30 년대	1918 금택장삼랑 (金澤庄三郎)	吏讀の研究(『朝鮮彙報』 1918년 4월호)	조선총독부
	1923 점패방지진 (鮎貝房之進)	國文(方言俗字), 吏吐, 俗證造字, 俗音, 借訓字(『朝鮮史講座』 제1~3호)	조선사학회

5) 박재민, 『신라향가변증』, 박이정, 2013, 158면.

	1929	소창진평 (小倉進平)	향가 및 이두의 연구	경성제대 법문학부
40 년대	1942	양주동	조선고가연구	박문서관
	1947	지현영	향가어요신석	정음사
50-80 년대	1954	정렬모	신라향가주해	북한: 국립출판사
	1956	이탁	향가신해독(『한글』 116)	한글학회
	1956	홍기문	향가해석	북한: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8	홍기문	고가요집	북한: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65	정렬모	향가연구	북한: 사회과학원출판사
	1967- 1969	김선기	현대문학 145-177집	현대문학사
	1972	정연찬	향가의어문학적연구	서강대인문과학연구소
	1974	김상억	향가	한국자유교육협회
	1975	서재극	신라향가의 어휘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79	김준영	향가문학	형설출판사
	1980	김원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최학선	향가연구	도서출판 우주
	1987	정창일	향가신연구	세종출판사
	1988	양희철	고려향가연구	새문사
90년 이후	1993	금기창	신라문학에 있어서의 향가론	태학사
	1994	유창균	향가비해	형설출판사
	1995	강길운	향가신해독연구	학문사
	1996	최남희	고대국어형태론	박이정
	1997	양희철	삼국유사향가연구	태학사
	2000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표1〉에서 보이듯이, 향가 연구의 역명기는 1910년대 후반부터 30년대까지로, 주로 일본학자들에 의해 착수되고 주도되었다. 이후 양주동의 『古歌研究』가 1940년대에 집필되었고, 1950년대는 북한 학자들의 저술이 나왔다. 1970년대는 대학에 자리를 잡은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본다. 이 시기는 정연찬, 서재극, 김준영 등이 이끌었고, 그 영향의 마지막 시기이던 1980년에 향가 연구의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김원진의 『향가해독법연구』가 나왔다. 이후 1980년대는 정창일 등 재야 학자에 가까운 연

구자의 저술이 발간되었고, 90년대가 되자 금기창, 유창균, 강길운 등의 노학자들의 저술이, 학문 생애의 결산 삼아 학계에 제출되었다. 90년대를 거치며 이름을 알린 양희철과 신재홍은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향가의 대표 연구자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으로 산출된 향가 연구서는, 양으로만 보자면 적지 않은 열정이 쏟아 부어진 것인데, 과연 해독도 그것에 비례하여 진척되었던가? 또 그 결과는 어느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전술했듯이 평가의 부문은 문법 체계의 이해와 古語의 문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고어의 문증 정도를 어떻게 계량화할 수 있는가란 것이다. 문법 체계의 이해는 그들이 향찰 표기를 어떻게 체계화하고 있는가를 살피면 어렵지 않게 검증 가능하겠지만, 옛말의 파악 비율은 어떤 기준을 세워두지 않으면 객관적 수치화가 어려울 듯하다. 우선 시대별 연구자의 특징을 짚어가며, 그 점에 대해서는 해당 지점에서 논한다.

3. 1920·30년대의 해독 : 소창진평의 연구

향가 해독의 본격적 서막을 연 소창진평의 공로는 첫째, 한 편의 저술에 향가 작품 모두를 망라하며 확정한 점에 있다. 그 이전의 두 연구인 1918년의 金澤庄三郎과 1923년의 鮎貝房之進이 각각 〈처용가〉 1수 혹은 〈처용가〉, 〈서동요〉, 〈풍요〉만 다루었던 데 비해, 소창진평은 균여향가 11수와 삼국유사 소재 향가 14수를 모두 대상으로 삼았다. 그의 연구 이후 향가 작품의 범주에 추가된 작품으로 「悼二將歌」가 있을 뿐이란 점에서 그는 향가 장르를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확정한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또, 수록하면서 原典의 誤字에 대한 꼼꼼한 비평을 행한 점도 점⁶⁾도 간과할 수 없다. 원전의 양과

6) 원전의 글자를 오자라고 판단하고 정정하여 해독한 곳은 다음의 5곳인데, 모두 인정된다.

질 모두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는 향가연구의 성실한 개척자로 인정된다.

그런데 소창진평의 진가는 단순히 텍스트를 집성하여 학계에 보고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텍스트에 내재한 여러 원리들을 살피고 그 사항들을 체계화한 연구자란 점에서도 의의가 깊다. 작품 단위로 보아 향가의 형식을 3種으로 분류⁷⁾한 점, 향가에 사용된 漢字들이 新羅語의 음 또는訓과 연관되어

切德(칭찬여래가, 균여전 원문) → 功德(소창진평 61면), 逐好支(상수불학가, 균여전 원문) → 逐好友(소창진평 123면), 止以友(칭불주세가, 균여전 원문) → 止以支(소창진평 119면), 知右如(안민가, 삼국유사 원문) → 知古如(소창진평 163면), 大大平(안민가, 삼국유사 원문) → 太平(소창진평 163면),

하지만 잘못 파악한 글자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방점은 필자)

衆生界盡我懺盡(참회업장가, 균여전 원문) → 衆生界盡我懺悔(소창진평 78면), 日遠鳥逸(우적가, 삼국유사 원문) → 日遠鳥逸(소창진평, 232면), 喰惡支(안민가, 삼국유사 원문) → 喰惡支(소창진평 163면), 國惡支(안민가, 삼국유사 원문) → 國惡支(소창진평 163면), 持以支(찬기과랑가, 삼국유사 원문) → 持以支(소창진평, 172면), 多可支(원왕생가, 삼국유사 원문) → 多可支(소창진평, 201면)

이상은 분명한 오류이고, 이외 후대연구자들이 수정하여 해독하는 경향이 강한 곳으로는 서동요의 “𠵼乙”이 있다. 소창진평과 양주동은 “卯乙(소창진평, 189면)”로 보았으나, 근래의 연구자들은 “卯乙”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또 우적가의 “好尸日(소창진평 234면)”도 양주동 이래 “好尸日”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그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곳으로는 칭불주세가의 “鳴良爾(균여전 원문)”이 있다. 소창진평과 양주동 이래 많은 학자들이 “鳴良爾(소창진평 116면)”로 보고 있지만, “鳴良尔”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칭찬여래가의 “間王冬留”는 그의 해독(소창진평 56면) 이후 아무 문제없는 자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구결학회에서 오대산의 善本을 검토한 결과 “間毛冬留”임이 밝혀졌다.

7) 一. 한 首의 향가는 4句 또는 8句로 이루어진다. (一首の郷歌には四句又は八句より成る.)

一. 8句로 된 향가에는 원칙적으로 끝에 2句로 된 後句가 붙어 있다.(八句より成る郷歌

있음을 인지⁸⁾한 점, 향가에 나온 한자들이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폭넓게 밝힌 점 등 해독을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영역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그 결과를 남겼다는 점으로도 적지 않은 연구사적 위상이 있다.

향가 연구에 있어 소창진평의 가장 큰 공적은 노랫말을 어절별로 나누어, 빠짐없이 그 의미를 풀이하였다는 데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도 어절별로 나누어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소창진평은 25수 전체를 어절에 맞추어 풀이하였다는 점, 그 이해도 또한 높았다는 점에서 鮎貝房之進의 연구에서 몇步는 더 나아간 것이라 평할 수 있다. 둘의 설명을 잠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점패방지진(1923, 209면)	소창진평(1929, 190면)
他密只	“나밀귀”라고 읽는다. 他는 뜻이 ‘남’이고, ‘密’은 음으로 읽어 ‘밀’인데, 남의 어미에 붙어 ... ‘나밀·나밀’이라 읽는다.	<p>“남(애) 그스기”. ‘他’는 ‘남’이라 읽는데, ‘他人’의 의미, ... ‘密只’는 ‘그스기’(後世에는 변하여 ‘그으기’)라고 읽어 ‘몰래’의 의미이다. ‘그스기’라는 말은 古語에 속해</p> <p>훈 소리로 그스기 불기시며 (法華經)</p> <p>이슬은 그스기 화후사미라 (同前)</p> <p>그으기 衰職을 돕스와 (杜詩諺解)</p> <p>그으기 巧호물 퍼누니 (同前)</p> <p>등과 같이 용례가 아주 많다.</p>

には,原則として終りに二句より成る後句が附いて居る.)

一. 4句로 된 향가에는 後句가 없다. (四句より成る 郷歌には 後句가 無い.) <소창진평, 264-265면>

8) 향가의 漢字는 우리 萬葉集에서의 한자와 같이 그 訓 또는 音으로써 읽는 것이다(郷歌中の 漢字は我が 萬葉集に於ける 漢字の如く,其の訓又は音を以て讀むのである.). <소창진평, 236면>

위의 내용은 <서동요>의 2행 “남 몰래 얼어 두고(他密只 嫁良置古)”를 설명하는 데서 가져왔다. 이 둘 간의 차이는 크다. 우선, 점패방지진의 설명은 고문헌의 인용이 없고 간략하다. 이에 비해 소창진평의 설명은 고문헌의 용례를 수반하고 있다. 또, 점패방지진의 설명은 잘못된 부분이 눈에 띈다. ‘密’을 ‘남’의 목적격을 위한 차자 ‘믈’로 파악하고 있음을 본다. 하지만 소창진평은 이를 漢字로 파악한 후, 이에 해당하는 고유어는 ‘그스기·그으기’라고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용례의 제시 또한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배열하고 있음을 본다. ‘그스기’와 ‘그으기’를 들씩 들면서 이 어휘의 역사적 변천도 알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향가의 총 어절들을 해독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몇 어절들을 해결해 내었을까? 그리고 그의 해석 중 몇 어절이 올바른 파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창진평의 향가 해독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자. 먼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가 25수의 어절 수를 알아야 하고, 그 어절마다 행해진 해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면 될 것이다. 일단, 향가 25수의 전체 어절은 기계적으로 헤아릴 수 있다. 가령, “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안민가)와 같은 구절은 “君隱 父也 臣隱 愛賜尸 母史也” 정도로 끊을 수 있으니, 5어절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향가 25수 220행의 어절을 분절하면 총 715어절 가량이 됨을 확인⁹⁾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의 해석이 적중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 역시 “君隱 父也 臣隱 愛賜尸 母史也”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 고안해 보자. 이 문장에서 ‘隱, 也, 尸, 也’ 등은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글자들로 해석 자체의 부담이 거의 없는 글자들이다. 그렇기에 이 글자들은 우선 의미 파악에 별 변수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 문장에서

9) 분절의 실제 양상은 논문의 말미에 첨부한 <향가 어절 분절표>를 참조할 것.

‘君, 臣, 愛, 母’등 어휘의 뜻을 파악했는가의 여부로 해당 어절을 파악했는가를 어느 정도는 계량할 수 있게 된다.¹⁰⁾

다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긴 하지만, 초기 연구가 성취한 향찰의 해독율을 확인하는 것은 향가 해독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 중요한 정보이므로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글의 부록으로 붙은 긴 표〈향가 어절 분절표〉인데, 이 표에 따르면 소창진평은 우리가 해독의 대상으로 삼는 향찰의 총 715개 어절 중, 514개소에서 語節 語頭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율로 바꾸면 514/715 즉, 72%가 되는데, 이로써 우리는 소창진평의 해독율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어절 단위로 볼 때, 그는 약 70% 정도의 해독에 성공했던 것이다.

소창진평의 공로 중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문법소에 대한 설명을 비교적 정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예로 든 〈안민가〉의 구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향찰의 어절은 “[실질 의미를 지닌 語頭] + [형식형태소가 나타나는 語末] (ex. [君실질어두] + [隱형식어말], [父실질어두] + [也형식어말] 등)”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형식형태소의 위치에서 구사된 차자들의 음가와 기능이 모두 그의 저술에 기술되어 있음을 본다. 아래는 그것들 중 주요 조사들을 모아 본 것인데, 현대의 연구에 비해 볼 때도 별 손색이 없다.

【주격조사】 - ‘은, 은’

‘隱’은 주격을 표하는 조사 ‘는(는)’ 또는 ‘은(은)’을 대신해 쓰인다. <68면>

‘焉’은 주격을 표하는 조사 ‘은’이다. <165면>

10) 물론, 아주 섬세한 입장에서 말할 때, 이런 식으로 계량하면 수치는 실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어절의 후반 부분, 즉 조사와 어미 부분을 완전히 다 안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향찰 해독의 어떤 부분은 어두의 의미를 파악했다고 해도 조사 혹은 어미의 기능이 애매하여 전체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방법은 유효하리라 본다. 조사와 어미의 경우 이견이 있는 곳이 그리 많지는 않고,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현격한 의미 차이가 있는 경우는 더 드물기 때문이다.

【목적격조사】 - ‘을, 을’
 ‘乙’은 음이 ‘을’로 목적격을 표시하는 조사 ‘을’ 또는 ‘을’을 대신해 쓰인다. <소창진평, 67면>
 ‘尸’는 목적격 을 · 을 등을 표하는 데 쓰인다. <소창진평, 127면>

【관형격조사】 - ‘의, 이, 사’
 ‘矣’는 음이 ‘의’로 ‘의’를 뜻하는 ‘의’에 쓰인다. <소창진평 176면>
 ‘衣’는 향가에서 많이 持格 ‘의(의)’의 의미로 쓰인다. <소창진평 57면>
 ‘叱’은 持格을 표시하는 조사로 오늘날의 ‘의’ 또는 ‘사’에 쓰인다. <소창진평 45면>

【부사격조사】 - ‘애, 에, 예’
 ‘衣’는 ‘애’로 장소를 표시하는 조사 ‘에’의 의미이다. <소창진평 38면>
 ‘良’은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애’의 의미이다. <소창진평 182면>
 ‘中[에]’은 ‘良中’과 같은 뜻으로…장소를 나타내는 ‘에’의 의미로 쓰인다. <소창진평, 119면>

【종결사】 - ‘-다, -고’
 ‘古如’는 ‘고다’로 읽으며 文句의 끝에 붙는 助詞이다. <소창진평, 166면>
 ‘多’는 음이 ‘다’이므로, ‘來叱多’ 석자를 ‘왔다’로 읽는다. <소창진평, 217면>
 ‘古’는 음이 ‘고’로 영탄의 의미인 ‘고’를 표시한 것이다. <소창진평, 198면>
 ‘遣’은 ‘고’로 읽는다. “去賜里遣 가사리고?” <소창진평, 203면>

4. 1940년대의 해독 : 양주동의 연구

잘 알려져 있다시피 양주동은 소창진평의 글에 感發하여 향가 해독에 일생을 걸었던 연구자이다. 그는 향가를 연구하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京城帝國大學 紀要 第一卷」이란 副題가 붙은 그 책을 빌어 처음엔 好奇心으로, 차차 驚異와 感歎의 눈으로써 하룻밤 사이에 그것을 通讀하고 나서 나는 참으로 글자 그대로 敬歎했고, 한편 悲憤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첫째 우리 문학의 가장 오랜 遺珠, 더구나 우리 文化 내지 사상의 현존 最古原流가 되는 이 귀중한 「鄉歌」 … <양주동, 889-890면>

그렇기에 양주동은 해독은 日人 소창진평의 범주를 넘어서려는 목표와 함께 진행되었다.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소창진

평은 이미 향가를 이루는 700여 어절을 모두 다루면서 그 중 514 어절에 대해서 현대적 의미 및 관련 古語를 발굴하는 노력치 않은 성취를 이룬 바 있다. 하지만 시대적 悲憤에서였을까, 양주동의 문헌 섭렵 범위는 양과 질에서 압도하며 소창진평의 그것을 훌쩍 넘어 선다.

우선 古語를 文證하기 위해 동원한 고문헌의 분량 및 용례의 수효에서 볼 때, 양주동은 소창진평의 10배 정도의 공력을 쏟았음이 확인된다. 『고가연구』에 가장 많이 참조된 고문헌은 『杜詩諺解』인데, 무려 500회 이상의 용례를 제공하고 있음을 본다.¹¹⁾ 이 과정을 통하여 양주동은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고어를 『고가연구』에 수록한다. 그가 소창진평의 해독을 부인하고 새로운 고어로 보충한 곳은 54회에 달하고, 소창진평이 인용한 고어에서도 정확하지 않은 어형의 고어 또한 모두 선초 문헌에서 보다 정확한 어형을 찾아 100여 개 이상 고가연구에 수록했음을 본다. 이를 적용하여 양주동과 소창진평이 수집한 고어의 합을 비율로 환산해 보면 568¹²⁾ / 715가 되어 79%의 성취율을 확인하게 된다. 결국, 어절 단위로 볼 때 양주동 시대에 향가 작품 전체 해독에 필요한 어휘의 80% 가량을 확보하여 활용하였고, 양주동은 이에 준하는 비율로 성공적인 해독을 했던 것이라 풀이할 수 있다.

향가 연구에서 양주동의 공로는 압도적인 고문헌 섭렵을 통해 이룬 양적인 부문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향가를 어학의 대상이 아니라 문학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가 『고가연구』에서 향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학자의 입장이 아니라 문학자의 입장임을 시사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작품의 배열을 보면, 소창진평은 보현시원가를 앞세우지만 양주동은 삼국유사의 작품들을 앞세우고 있음을 본다. 이것은 종교적 관념을 담은 작품보다는 신라의 서정성을 담은 작품 탐구에 더 우선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11) 이는 소창진평의 인용 횟수 50여 회에 비해 볼 때 10배 가량 많은 것이다. 인용 횟수는 필자 검토 결과임.

12) 소창진평이 적중한 고어 514에 양주동이 추가로 발굴한 고어 54을 합한 수치이다.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시어를 풀이하는 데 소요된 문헌 또한 詩적인 면을 환기하는 의도가 감지된다. 소창진평은 전혀 인용하지 않은 고려가요를 때맞추어 인용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詩를 詩로써 풀이하는 작업을 하고 있노라”는 암시를 행간으로 하고 있지 않았나 한다. 다음의 인용을 보자.

		소창진평(1929)	양주동(1942)
(1)	春	春은 훈으로 ‘봄’이라 읽는다. <소창진평, 150면>	春 訓讀 「봄」 봄날 봄盤잇 7는 생채를(春日春盤細生菜) (杜諺卷11,1) 보미 치우니 고지 더기 더디도대(春寒花較遲) (杜諺卷11,8) 春 봄 (字會上,1) <양주동, 76면>
(2)	風	風은 ‘부름’이라 읽는다. 「鷄林類事」에도 「風曰 孛纜」이라고 써어 있다. <소창진평, 212면>	風 訓讀 「부름」 風曰 孛纜 (鷄林類事) 불취기픈 남근 부르매 아니될씨 (龍歌, 2장) 미온 부르미 하도대(多烈風) (杜諺卷18,12) 風 부름 (字會上2) <양주동 552-553면>
(3)	進	‘進’은 옛날에는 ‘니살’로 새겼으나 후세에는 ‘나알’로 쓰게 되었다. ‘니살’은 自動詞에 속하므로 여기에는 부적당하다. 고로 일단 原文의 뜻을 찾아서 ‘들일’로 읽어 둔다. <소창진평, 113면>	進 訓讀 닳 니수오던덴 목숨 기트리잇가 (龍歌51장) 僕從들히 녀 수이 나사오디물후고(僕夫行不進) (杜諺1,41) 進 니술 (字會下 26) 덕이여 복이라호늘 니오라 오소이다 (樂學軌範 動動) 進賜 나으리 ○堂下官尊稱也 (吏讀便覽) <양주동, 787면>

고어의 경우, 소창진평은 많은 용례를 동원하며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설명을 하고 있음은 앞의 ‘密只’에 대한 설명에서 본 바와 같지만, 현대어와 형태적 차이가 크지 않은 어휘의 경우 위 표에서 보듯, 대체로 건조한 한 줄 설명

으로 대신하거나, 자전 및 언해류의 용례만 간략히 보일 때가 많다. 그러나 양주동은 아무리 평이한 단어라도 생략하는 법이 없다. 그는 현대어와 형태가 같은 ‘春- 봄’과 같은 어휘에 대해서도 고문헌의 용례를 수록하여 현대어의 어원을 알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詩歌 相關 古文獻 자료를 동원하여¹³⁾ 수록하고 있음을 본다. 이로 볼 때 그의 연구는 그 지향이 단순히 말의 의미를 알아내는 데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게 한다. 자료제시를 통하여 그는 문학적 풍취 또한 함께 상기시켜 보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양주동은 광범위한 문헌 섭렵으로 소창진평이 인지하지 못했던 단어 및 음운을 파악하기도 했다. 새로운 단어는 50여개 더 추가했고, 소창진평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古形도 100여 개소나 수정했음을 전술한 바와 같은데, 이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反’의 발견이다. 향가에는 ‘反’으로 표시되는 어휘가 총 7회 - 哀反多羅, 哀反多矣徒良(이상, 풍요), 彗星也白反也人(혜성가), 彼仍反隱, 菓音烏乙反隱(이상, 보현6), 道尸迷反群(보현7), 迷反群(보현10) - 출현하는데 소창진평은 이 어휘들을 각각 “哀反-서러외, 白反-슬월, 仍反隱-지즈얀, 烏乙反隱-열니얀, 迷反-윈”으로 풀이한다. 그의 문헌 섭렵 범위로는 ‘哀, 白, 仍, 烏乙, 迷’의 훈 속에 잠재해 있는 ‘反’에 가까운 공통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외 혹은 야’음을 나타내는 차자로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양주동은 이들이 각각 ‘썩-, 숲-, 뉘-, 오웁-, 입-’를 나타내는 字임을 정확히 포착한다. 그리고 이들의 ‘反’을 이들 訓의 末音에 대

13) 양주동이 가장 많이 활용한 고문헌은 杜詩諺解[약 550회]이다. 다음으로 龍飛御天歌[약 265회], 月印千江之曲[약 248회], 訓蒙字會[약 116회], 樂學軌範[약 98회], 鷄林類事[약 74회], 永嘉集諺解[약 63회], 樂章歌詞[약 57회]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창진평은 龍飛御天歌[약 54회]를 가장 많이 인용했고, 杜詩諺解[약 46회], 法華經諺解[약 37회], 訓蒙字會[약 37회], 圓覺經諺解[약 36회], 月印千江之曲[약 22회], 千字文[약 22회], 捷解新語[약 21회], 鷄林類事[약 16회]... 樂學軌範[1회]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주동의 참고 문헌에 악학궤범과 악장가사가 순서에 들어 있는 반면, 소창진평의 참고문헌에는 악학궤범 1회만이 들어 있을 뿐 천자문류와 언해류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연구자가 향가를 대하는 목적이 뚜렷이 달랐음을 알게 된다.

응시켜 각각 “설븐, 살븐, 너븐, 오을븐, 이븐”로 正解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양주동은 소창진평이 가지 못했던 어휘 범주까지 섭렵하여 그 곳의 어휘로써 향가를 해독하였던 바, 향가의 어휘를 최대 폭으로 문증해 낸 업적이 있다.

양주동의 업적은 방대한 문헌을 통한 어휘의 발굴과 교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소창진평이 2분류하였던 향찰의 체계를 6분류하여 체계화한 공도 있다. 그는 향가에 사용된 모든 글자를 다음과 같이 義字와 借字로 大別한다.

二十五首의 詞腦歌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全部 漢字로 記寫되었는데 그 用字法은 義字와 借字로 大別된다. 廣義로 보면 일체의 漢字가 모두 借字 아님이 아니나, 여기 이른바 ‘借字’란 義字가 漢字를 原意대로 쓴 것임에 反하여 漢字의 原意와는 關係됨이 업시 그 音訓만을 빌어 我語를 表記함을 이르는 것이다. <양주동(1965:59)>

이 분별은 향가에 쓰인 글자의 속성을 꿰뚫어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의 향가 연구자인 소창진평 또한 향가에 쓰인 한자를 二分¹⁴⁾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 의미를 지니지 않는 글자 즉, 借字에 대한 이분이었던 데 반해, 양주동은 ‘原意를 지니는 자’와 ‘原意를 지니지 않는 자’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막중하다.

이후 그는 향가에 쓰인 글자를 보다 세분하여 다음과 같은 틀을 제시하는데, 이 틀의 골격은 후대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체계를 세워가는 데 큰 기여¹⁵⁾

14) 소창진평은 향가에 사용된 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2대분하여 보고 있다. “吏讀에 사용된 漢字는 萬葉假名와 같이 그 訓 또는 音으로써 읽는다(吏讀に使用せられた漢字は 萬葉假名の如く 其の訓又は音を以て讀む.)”. <소창진평, 『鄉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1929, 477면>

15) 단 이 표에서 보이는 義訓讀과 義訓借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그가 義訓讀할 곳과 義訓借字로 밝힌 곳은 30여개소 정도인데, 살펴보면 의훈독은 훈독, 의훈차는 훈차자에 귀속시켜도 무방함을 알 수 있다. 그가 밝힌 의훈독할 부분과 의훈차자를 망라하면 다음과 같다.

義訓讀 : 皆(‘한’ 801, 827, 844면), 教(‘이시’, 213, 620면), 今日(‘오늘’ 525, 703,

를 하게 된다.

一. 義字

- | | |
|----------------------|-----------|
| 1. 音讀 : 善化公主主隱 善化公主, | 法界毛叱所只 法界 |
| 2. 訓讀 : 去隱春 가·봄, | 心未筆留 므슴·분 |
| 3. 義訓讀 : 今日此矣 오늘 | 何如爲理古 엇다 |

二. 借字

1. 音借 : 薯童房乙을, 君隱父也은·여
2. 訓借 : 民是 이
3. 訓訓借 : 遊行如可 다 <양주동, 60면>

양주동이 소창진평을 넘어선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음운을 가급적 일관된 방식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소창진평의 연구는 여러 장점이 많았지만, 특정 글자의 중심 음을 잘못 설정하거나, 음역을 지나치게 넓게 잡은 흠을 지니고 있었다. 가령 ‘只’만 보더라도, 그는 중심음을 다음과 같이 ‘-아/-어’로 보고 있으며, 변주음 또한 예닐곱 개의 음으로 설정하여 해독에 적용하고 있음을 본다.

‘只’는 ‘ㄱ’(소창진평 71면), ‘只’는 ‘기’(소창진평 63·191·234면), ‘只’는 ‘-아-어’(소창진평 84·93·113·115·126·130·133·137·209·231면), ‘只’는 ‘약’(소창진평 222면), ‘只’는 ‘이’(소창진평 61·126면), ‘只’는 ‘지’(소창진평 43·96면), ‘只’는 ‘티’(소창진평 197면), ‘只’는 잉여자(소창진평 19·93·168면)

그러나 양주동은 ‘只’의 중심음을 정확히 ‘ㄱ, 기’로 인지¹⁶⁾하고 있다. 이런

758면), 兵物(‘잠개’ 658면), 所(‘드르’ 683, 863면), 如(‘똥’ 630면), 悟(‘알리’ 847면), 邀(‘피시’ 691, 711면), 自(‘저’ 640면), 將來(‘르·려’ 590, 641, 747, 789면), 中(‘히’, 189면), 之(‘익’ 628면), 何如(‘엇디’, 429면)
 義訓借 : 年數(‘살’, 125면), 念(‘씨’, 503면), 如(‘다’ 243, 311, 356, 400, 453, 488면), 以(‘르’, 279면), 之叱(‘앗’ 634면)

여러 점 등으로 볼 때, 양주동은 소창진평이 개척한 어석의 지평을 뚜렷하게 넘어 섰다고 할 수 있겠다.

5. 1950-1980년대

소창진평과 양주동의 연구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그들의 연구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전계한 표에서 보이듯이 50년대에 정렬모, 이탁, 홍기문 등의 저술이 나왔고, 60년대 김선기의 독특한 해석을 거쳐 70년대에는 정연찬, 김상억, 서재극, 김준영 등의 연구가, 80년에는 김완진의 『향가해독법 연구』가 출간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저술들을 보면, 연구의 분위기가 초기와는 사뭇 다르다. 초기의 연구가 방대한 고문헌을 섭렵하여 귀납적으로 구절 하나하나의 의미를 밝혀 나간 데 반해, 이 시절의 연구는 간략한 몇 문헌만을 자료로 삼아 문증하거나, 몇몇 방언을 간헐적으로 추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본다. 그렇기에 이탁의 연구는 25수의 해독 모두를 담고 있지만 결과물은 불과 몇 십 페이지에 불과하고, 정연찬, 서재극의 저술도 수십 매 정도로 마무리되어 있다. 김완진의 저술 또한 작품 한 편을 해독하는 데 서너 장밖에 소요되지 않을 정도로 간략한 설명을 위주로 하고 있음을 본다.

귀납적 방법이 더 이상의 진척을 못한다고 판단될 때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방법은 연역에 의한 것밖에 없었기 때문일까, 이 시기에는 이미 간과된 속성을 이룬 삼아 다른 부분에 연역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론을 구사하는 방법론이 등장하기도 한다. 김완진이 주창한 訓主音從의 원칙, 指定文字說 등은 이런 방법론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16) “只는 「다·지·기」 互轉에 依하여 「지」 혹은 「기」에 音借되나, 本條의 「只」는… 바로 「기」임을 알 것이다.” <양주동, 295-296면>

로 지시하는 正統的인 訓借로 이를 正借라 한다면 ...

〈김완진(1980) 17-18면〉

그들은 “春, 地, 人, 川, 心”를 “봄, 짜, 사람, 나리, 마음”으로 읽으면서 이를 훈차자로 파악하고 있음을 본다. 하지만 이 字들에는 한자의 의미가 유지되어 있으므로 훈차자가 아닌 훈독자가 된다.

만약 이러한 오해가 단순히 몇 개 어휘를 칭하는 데서만 끝난다면 그리 큰 문제로 부각시킬 것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용어가 향찰의 표기 체계 규정 에까지 파고 들면서 향찰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였다는 점 이다.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 해독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이론적 틀로까지 활 용되었음을 본다.

체계에 대한 혼란은 많은 곳¹⁷⁾에서 보이는데, 서재극의 언급을 대표적으 로 보자.

訓借字는 文章의 骨格인 意味部를 擔當하는 것이므로 語頭に 位置함이 原 則的이었으며, ... 音借字는 주로 形態部를 擔當하기 때문에 原則的으로

17) 이 혼란은 국어학 개론서 및 90년대의 여러 연구서에도 흔히 발견된다.

“우리의 借字表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漢字의 音을 빌어다 쓰는 音借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 뜻을 빌어다 쓰는 訓借 방식이 그것이다. ... 향가는 예외 없이 위의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혼용하고 있었다. 특히 첫머리에서는 훈차에 의한 방식을 쓰고 뒤쪽에서는 음차에 의한 방식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處容歌를 예로 들면 ... ‘明期’(밝-기) ‘月良’(드랄 - 량)의 앞부분은 訓借表記며 뒷부분은 音借表記인 것을 볼 수 있다. ... 명사나 어간 등의 實辭 부분은 訓借로, 조사나 어미 등의 虛辭 부분은 音借로 표기하는 원리를 볼 수 있다. 〈이익섭, 『국어학개설』, 학연사, 1986, 234-236면〉

”借字表記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音借와 訓借의 둘로 구분된다. 音借는 字音을 이 용하는 것이다. ... 鄉歌의 表記는 대체로 語幹要素는 訓借를 원칙으로 하고, 非語幹要素(文法素)는 音借를 원칙으로...” 〈유창균(1994:68)〉

는 訓借字에 連結되어 쓰였다. <서재극(1975:79)>

그는 향찰 어절 표기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면서 “훈차자 / 음차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향찰의 어절은 “어두의 훈차자 + 어말의 음차자”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향찰표기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인식이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설명들로 인해 “善化公主主隱”과 같은 구문은 ‘특수한 구문’으로 취급받으며 향찰의 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善化公主主隱”과 같은 구성은 향찰 표기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개념의 혼란이 해독의 아이디어로까지 번져 더 심각한 문제를 던지기도 했다. 이 시기의 향찰의 어휘 혹은 어절 구성 원리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訓主音從의 原理”일 것이다. 향찰은 대체로 訓을 앞에 세우고 音을 뒤에 오게 한다는 것으로, 김완진에 따르면, ‘前衣(알퐁)’, ‘筆溜(부드루)’ 등의 어절도 훈주음종이고, ‘心音(마슴)’, ‘川里(나리)’ 등도 훈주음종의 원리가 투영된 표기법이 된다.¹⁸⁾ 그런데 그는 이 원리를 더욱 확대하여 “去隱春 皆理米”(모죽지랑가) 등의 난해 구절을 풀 때도 해독의 한 원리로 활용한다. 훈주음종은 일반적인 어절 구성의 원리이므로 이 구절 또한 앞은 훈을 활용하고 뒤는 음을 활용해서 해독할 수 있으라는 것이었다. 그 결과 ‘皆’의 훈 ‘모도(모두)’와 ‘理米’의 음 ‘리매’를 합쳐 ‘모도리매’로 읽고는 이를 다시 띄어쓰기를 조절하여 ‘모 오리매’로 해독한다. 결국 이 사례는 훈주음종이 특이한 해독의 이론적 틀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독은 훈독자와 훈차자를 같은 ‘訓’이라는 범주에 넣어 동일시한 오류이며, 실제 논문 말미에 첨가한 <향가 어절 분절표>의 715개 용례를 살펴도 이런 원리를 활용해 표기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곳은 없거나 극히 드물다. 훈차가 아니라 훈독자로 넓혀서 볼 때도 이는 실제 정황과 다르다.

18)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980, 17-19면.

〈향가 어절 분절표〉를 보건대, 향가의 어절 구성 원칙은 결코 “훈(訓) + 음(音)”이 아니다. 어두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은 ‘의미를 가진 漢字’이고, 그것을 읽는 방식은, 單音節의 한자이면 대체로 훈독하고, 多音節의 한자이면 대체로 음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다음 도표에서 보이는 82%의 수치는 이 점을 확인시켜 준다.

	유사 363어절 (차사 8어절 제외)	보현 333 (차사 11어절 제외)	유사 + 보현 합 696 어절	비율
의미를 지닌 한자 + 의미를 잃은 차용자 ex) 郎也, 行乎尸	286어절	285어절	571 어절	571/696=82%
의미를 잃은 차용자 + 의미를 잃은 차용자 ex) 毛冬, 闕遣只賜立	77어절	48어절	125 어절	125/696=18%

이렇듯 이 시대는 다양한 독법이 시도되었던 시대로, 과감한 이론들의 主唱, 그리고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향가해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자 했던 시대라 할 수 있겠다.

6. 1990년대 이후와 해독의 전망

지금까지 우리는 향가의 해독이 진행된 과정을 두 가지 방향에서 살폈다. 하나는 향찰 체계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휘의 발굴 정도에 대한 것이었다. 이제 1990년 이후 행해진 연구 동향 및 미래 전망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려 한다.¹⁹⁾ 소창진평과 양주동의 저술에서 만족스럽게 해독되지 못했던 어휘는 총 160어절²⁰⁾ 가량이 된다. 그리고 50~80년대, 그리고

19) 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에 대한 것은 추후 논고를 통하여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이 장에서는 중요한 몇 성과와 연구의 통계적 결론만을 제시한다.

90년대를 거치면서 몇몇 어휘는 훌륭하게 해명되었는데 - 가령, 김준영의 “頓部叱”에 대한 해명²¹⁾ 등 - 그러한 약 60개의 어절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어절들을 얻게 된다. 이 표에 들어간 101개의 어절이 바로 아직 우리의 해독의 손길을 기다리는 미지의 어휘들의 전체 모습이다.

語頭가 일반 漢字일 가능성이 높은 어절들	語頭가 차자일 가능성이 높은 어절들
<p>□史<우적가>, 可支<원왕생가>, 居得<항순>, 古理因<원가>, 窟理叱<안민>, 惱叱古音<원왕생가>, 大盼<안민>, 都之叱<원가>, 朗也<우적가>, 物北所音叱<혜성>, 靡只<상수>, 放冬矣<도천수>, 房乙<서동>, 白良<원왕생가>, 尙宅<우적가>, 歲史中置<상수>, 藪邪<찬가>, 藪耶<혜성>, 數於將來尸<혜성>, 安支<우적가>, 安支<찬가>, 咽鳴爾<찬가>, 逸烏<찬가>, 逸烏隱<원가>, 逸○○<우적가>, 閻尸也<청불>, 擬可(너기, 비기)<수희>, 底亦<원왕생가>, 第也<원가>, 周<광수>, 處米<찬가>, 處也<청전>, 破□主<우적가>, 下<찬가>, 火條<광수>,</p>	<p>皆理米<모죽>, 古召旆<도천수>, 丘物叱<항순>, 丘物叱<항순>, 乃遣只<참회>, 內於都<우적가>, 乃叱好支賜烏隱<모죽>, 乃兮<칭찬>, 乃乎尸<찬가>, 內乎叱等邪<도천수>, 內乎香尼<우적가>, 多<원왕생가>, 多<풍요>, 多羅<풍요>, 多支<원가>, 達阿羅<혜성>, 都乎隱以多<우적가>, 羅波<청전>, 毛達只將來香隱<우적가>, 毛冬<칭찬>, 毛冬<모죽>, 毛冬<찬가>, 毛冬留<칭찬>, 毛冬乎丁<제망매가>, 毛等<칭찬>, 毛如<제망매가>, 毛叱色只<광수>, 毛叱所只<예경>, 毛叱所只<수희>, 毛乎支內良<도천수>, 卜以支<참회>, 卜下里<상수>, 所音<안민>, 是史<찬가>, 阿冬音<모죽지랑가>, 阿于波<총결>, 於<원가>, 於內<수희>, 於內<제망매가>, 於冬是<안민>, 如支<원가>, 吾音之叱恨隱<우적가>, 于萬隱<칭찬>, 于萬隱<도천수>, 于音毛<총결>, 伊<우적가>, 伊<원왕생가>, 伊羅<수희>, 伊羅<총결>,</p>

20) 양주동과 소창진평이 715 어휘의 총 80%에 달하는 560어휘를 해명했으므로 나머지 20% 어휘가 50-80년대의 연구자들에게 남겨졌던 셈인데, 이것이 총 150어절인 것이다(715-565 = 160개).

전체 715어절에서 소창진평과 양주동의 검은 칸을 빼면 그들이 남긴 어절 영역이 된다. 그 영역을 헤아려보면 약 160개소가 된다.

21) 김준영(1979, 202-203면.)에서 향가와 보현행원품의 구절을 비교하여 “頓(部)叱”이 ‘皆, 一切, 總, 悉’ 등의 어휘에 대응됨을 밝혔는데, 이로써 다음 6행들의 해독이 일거에 가능하게 되었다.

今日部頓部叱懺悔 <보현4>, 修叱賜乙隱頓部叱吾衣修叱孫丁<보현5>, 吾焉頓叱進良只<보현6>, 吾焉頓部叱逐好友伊音叱多<보현8>, 仙体頓叱喜賜以留也<보현9>, 一切善陵頓部叱廻良只<보현10>

<p>花乎<원왕생가>, 逸□□<우적가></p>	<p>伊於衣波<광수>, 伊留叱<총결>, 伊留兮<상수>, 伊知皆矣<청불>, 伊波<보개>, 伊波<총결>, 逸耶<참회>, 逸留去耶 <광수>, 仍反隱<청진>, 次弗<우적가>, 次盼伊遣<제망매가>, 七史伊衣<모죽>, 巴寶白乎隱<도술가>, 波衣<혜성>, 八陵隱<찬가>, 八切爾<혜성></p>
---------------------------------------	--

위에 남겨진 어휘는 크게 나누어 보면 漢字인 듯이 보이는 것과, 借字로 보지 않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어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향찰 표기에 한 두 번 정도 등장한다든가, 실질적인 의미가 노래의 배경이나 정서와 잘 어울릴 듯한 字는 한자 본연의 의미를 위해 구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령 <원왕생가>에서 보이는 ‘惱’는 서방에 가기를 고뇌하는 정서와 맞닿아 있고, <원가>에서 보이는 ‘第’는 시적 화자인 信忠이 그토록 갈망하는 登第(관직에의 등용)과 긴밀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혜성가>에 나타나는 ‘藪’는 햇불을 올리는 변방의 배경과 잘 조응되고 있다.

한편 향찰에 빈출하는 字들로 된 미해결구는 전체가 차자표기일 가능성이 높다. 향찰에서 ‘毛’자는 語頭에 매우 많이 등장하는데 이 字가 ‘털’이라는 의미로 쓰여서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의미 및 연결되는 자들이 차자에서 자주 등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아무래도 /모/라는 음을 위해 관습적으로 사용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어휘에 대해 각각 다른 방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자로 짐작되는 것은 주변 어절을 살펴 혹 그것이 어떤 관용구일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차자로 짐작되는 어휘는 삼국사기의 지명이나, 고려시대의 물명, 그리고 가장 중심적으로는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구결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90년대를 지나 현재까지 오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된 구결이 적지 않다는 것은 여전히 이러한 가능성이 유효하리란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시도를 통하여 비교적 명료하게 해명되었던 한두 예를 들면서 그 가능성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해 보려 한다.

먼저 한자어일 가능성이 높았던 어휘의 사례이다. 도천수관음가의 마지막 구에 나오는 ‘慈悲也 根’은 소창진평과 양주동 모두에게서 ‘자비야 큰고?’로 풀이되었다. 慈悲와 根의 관용성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불가피하게 ‘根’을 ‘큰’의 음차자로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다음 불경 구절을 보자.

菩薩妙法樹 生於直心地 信種慈悲根 智慧以爲身 方便爲枝幹 五度爲繁密 定業神通華 一切智爲果 : 보살의 묘법수는 곧은 마음의 땅에서 생겨나니, 믿음은 씨앗, 자비는 뿌리이며, 지혜로 몸을 삼고, 방편으로 근간이 된다. <華嚴經 80卷本, 第59卷>

여기에서 보이는 ‘慈悲根’은 佛家の 관용구인데, 이로써 우리는 도천수대 비가의 ‘慈悲也 根古’이 “자비의 뿌리인고”를 뜻하는 말임을 알게 된다. 이 사례는 한자로 추정되는 음은 문화적 배경 - 특히 불경- 을 살필 때 풀이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할 만하다.

다음 차자들끼리의 나열인 어휘의 사례이다. 차자 나열의 경우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수단은 고려시대의 구절을 활용하는 것이다. 고려시대의 구절과 향찰 표기는 쓰이는 차자라든지, 문법 형태가 거의 쌍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에 현재 구절학회를 중심으로 구절과 향찰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두 표기의 비교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도 많이 도출해 왔다. 위의 박스에 있는 난해구 중 하나인 “毛叱色只”도 구절과 비교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毛叱色只”이 포함된 향가의 구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절이 구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手焉法界毛叱色只爲拈 手良每如法叱供乙留 法界滿賜仁仏体 仏
仏周物叱供爲白制

(손은 법계 두루 하며 손에마다 법공으로 법계 차신 부처 불불두루 공양하오

저) 〈普賢3〉

一隱 手乙 以良 三千良中 [徧] 爲良 普利 一切 諸隱 如來乙
 供爲在

(한 손으로 삼천세계에 [두루]마다 하여 널리 一切 모든 여래를 공양하여 :
 能以一手遍三千 普供一切諸如來) 〈華嚴經 15:17〉

이 둘을 비교함으로써 未知의 어휘인 “毛叱色只”의 의미를 밝힐 수 있는 것이다.

7. 결론을 대신하여

이 논문의 시작은 과연 현재 향가 해독의 진척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였다. 향가를 둘러싼 담론 중에 흔히 나오는 말 - “향가는 어려워서 모두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 않는가?” - 에 대한 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량이라도 해 보아야겠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어떤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척 주관적이어서, 그 기준의 느슨함과 엄격함에 따라 평가 점수는 크게 달라질 것임을 안다. 형태소 혹은 음운까지를 다루는 국어학의 입장에서 전혀 다른 해독율이 나올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기준에는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시어의 의미 이해’ 기준에 맞추어 표기체계의 파악 및 어절의 이해를 그 단위로 삼았다.

그 결과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표기체계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그 혼란은 아직도 말끔히 가시지 않고 있음을 보았다. 또, 고문헌의 섭렵을 통한 어휘의 발굴 현황도 보았다. 거칠게나마 헤아린 결과 총 715개의 어절 중, 소창진평에서 514개 즉, 70% 가량 확보하였고, 양주동에 이르러 568개 즉, 80%에 달하는 어휘를 확보했음도 확인했다.

이후 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구결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결자료를 통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주목할 만한 성과들도 제출되었다. 다만 본고에서는 분량의 제약으로 이를 개략적으로 언급했을 뿐, 세밀히 다루지는 못했다. 이 시기(1990년대-2018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보다 정밀한 계량 방식을 마련하여 후고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표도 얻게 되었다. 논문 말미에 수록된 〈향가 어절 분절표〉를 요약한 것으로, 전체 어절 중 몇 개의 어절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율을 적은 것이다. 이것이 본고가 판단하는 현재 향가의 해독 수준이다.

삼국유사 소재향가	의미파악 어절	전체 어절	의미 파악률(%)
모죽	24	29	83
헌화	13	13	100
안민	33	37	89
찬기	25	35	71
처용	22	22	100
서동	11	12	92
도천수	24	33	85
풍요	10	12	83
원왕	24	31	77
도솔	12	13	92
제망	28	32	88
혜성	31	37	84
원가	26	32	81
우적	20	33	61
합	303	371	84.71

보현시원가	의미파악 어절	전체 어절	의미 파악률(%)
예경	25	26	96
칭찬	25	29	86
광수	24	29	83
참회	28	32	91
수희	29	34	88
청진	25	30	87
청불	31	33	94
상수	31	35	89
향순	25	28	89
보개	33	34	97
총결	29	34	85
합	305	344	89.55

《향가 어절 분절표》

- i) 진한 글자는 一般 漢字語[正用字, 韓中日 모두가 같은 뜻으로 이해하는 한자].
- ii) 나머지 글자는 借字 및 불분명한 漢字語[=正用字].
- iii) 한글이 달린 것은 文證되는 어휘. 곧, 해석이 완료된 어휘.
- iv) 밑줄 그은 부분은 어절 끊기가 합의되지 않은 구절.
u003E- v) ●이 달린 것은 어절의 語頭이되, 해석이 미결된 어휘.
- vi) 색칠한 칸의 古語는 최초 제기.[약간 수정한 것은 최초 제기로 보지 않음.]
- vii) 음영을 넣은 古語는 보다 정확한 古形으로 인정되는 것.
- viii) 띄어쓰기는 현대문법을 따름. 단 ‘의미를 지닌 접미사’는 띄움.
- ix) 古語를 대규모로 발굴·수록한 세 업적을 대상으로 함.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모 죽 지 랑 가	1		去隱 春 皆理米 가 봄 ●					
		①	去	가-	가-	가-	○	
		②	春	봄	봄	봄	○	
		③	皆	다	音借그	音借그		
	2	④	理	다스리-	音借리	音借리		
			毛冬 居叱沙 哭屋尸以 憂音 ● 잇 울 시름					
		⑤	居	音借거	音借거	音借거	○	居叱 = 잇 : 김준영(1981)
		⑥	哭	울-	音借우	울-	○	
	3	⑦	憂	설음	시름	시름	○	
			阿冬音 乃叱好支賜烏隱 ● ●					
	4	⑧	好	도화-	音借호	과-		
			兒史 年數 就音 墮支 行齊 중 年數 나 떠러디 녀					
		⑨	兒	짓	중	중	○	
		⑩	年數	齡	訓借살	나히	○	
		⑪	就	날-	音借썬	무썬		
	5	⑫	墮	떠러디-	音借디	디	○	
		⑬	行	녀-	訓借녀	訓借녀	○	
		目煙 廻於尸 七史伊衣 눈 돌 ●						

	6	⑭	目	目	눈	눈	○	
		⑮	廻	말-	돌-	돌-		
	6		逢烏支惡知 作乎下是 맞보 징					
		⑯	逢	맞나	맞보-	마조-	○	
		⑰	作	징	징	일우-	○	
	7		郎也 慕理尸 心未 行乎尸 道尸 랑 그리 몹 녀 길					
		⑱	郎	郎	郎	郎	○	
		⑲	慕	그리-	그리-	그리-	○	
		⑳	心	몹	몹	몹	○	
		㉑	行	녀-	녀-	녀-	○	
		㉒	道	길	길	길	○	
	8		蓬次叱 巷中 宿尸 夜音 有叱下是 디붓 굴형 잘 밤 잇					
		㉓	蓬	뿌	디붓	달	○	
		㉔	巷	굴형	몹	골	○	
		㉕	宿	자-	자-	자-	○	
		㉖	夜	밤	밤	밤	○	
		㉗	有	잇-	잇-	잇-	○	
			총 어절 : 29 文證된 어두 : 24 미파악 어두 : 5 [皆, 毛, 阿, 乃, 七]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4/29 = 83%		이 비율은 전체 어절 수에서 ● 표를 語頭로 하는 어절을 제한 비율임.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현화가	1		紫布 岩乎 過希 딤 바회 굵					
		①	紫	뿌	딤배	지	○	
		②	岩	바회	바회	방고	○	
	③	過	굵	굵	서리	○		
	2		執音乎 手 母牛 放教遣 잡 손 암쇼 놓					
		④	執	잡-	잡-	줍-	○	'심기다'
⑤		手	손	音借손	손	○		
⑥	母牛	암쇼	암쇼	암쇼	○			

	⑦	放	놓-	노ㅎ-	놓-	○			
3		吾盼 不喻 慚盼伊賜等 나 안디 붓그리							
	⑧	吾	나	나	나	○			
	⑨	不	아닌	안디	묻	○			
	⑩	慚	붓글-	붓그리-	허믈	○			
4		花盼 折叱可 獻乎理音如 꽃 겻 받줍							
	⑪	花	꽃	꽃	골	○			
	⑫	折	씩-	겻-	겻-	○			
	⑬	獻	들어-	받줍-	받-	○	‘獻후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총 어절 : 13 文證된 어두 : 13 미파악 어두 : 0 </td> <td style="width: 50%;">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13/13 = 100\%$ </td> </tr> </table>								총 어절 : 13 文證된 어두 : 13 미파악 어두 : 0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13/13 = 100\%$
총 어절 : 13 文證된 어두 : 13 미파악 어두 : 0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13/13 = 100\%$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안 민 가	1		君隱 父也 님금 아비					
		①	君	님금	君	君	○	
		②	父	아비	어비	아비	○	
	2		臣隱 愛賜尸 母史也 臣 둡 어시					
		③	臣	臣	臣	臣	○	
		④	愛	두수	두수	고비	○	
	3	⑤	母	어미	어시	어시	○	
			民焉 狂尸恨 阿孩古 爲賜尸知 민 얼 아히 흥					
		⑥	民	민	민	민	○	
		⑦	狂	밋치-	얼-	얼-	○	
	4	⑧	孩	아히	아히	아히	○	
		⑨	爲	흥-	흥-	흥-	○	
	4		民是 愛尸知古如 민 두솔 알					
		⑩	民	민	민	민	○	
		⑪	愛	두솔	두솔	고비	○	

	⑫	知	알-	알-	알-	○	
5		窟理叱 大盼 生以支 所音 物生 ● ● ● 物生					
	⑬	窟	音借굴	訓借구우	골		窟 = 굴?
	⑭	大	音借대	音借다	音借다		大 = 火? (신재홍, 2000)
	⑮	生	生	살-	訓借나	○	
	⑯	物生	物生	物生	物生	○	
6		此盼 喰惡支 治良羅 이 먹 디스					
	⑰	此	이	이	이	○	
	⑱	喰	먹-	먹-	먹-	○	
	⑲	治	다스리-	다스리-	다스리-	○	
7		此 地盼 捨遣只 於冬是 去於丁 爲尸知 이 싸 버리 ● 갈 흥					
	⑳	此	이	이	이	○	
	㉑	地	싸	싸	싸	○	
	㉒	捨	버리-	버리-	버리-	○	
	㉓	去	가-	가-	가-	○	
	㉔	爲	흥	흥	흥	○	
8		國惡支 持以支 知右如 나라 디니 알					
	㉕	國	나라	나라	나라	○	
	㉖	持	디니-	디니-	디니-	○	
	㉗	支	과-	虛字	音借기		
	㉘	知	訓借르	알-	알-	○	
		後句					
	㉙	後句	後句	아으	아라	○	
9		君如 臣多支 民隱如 爲內尸等焉 君 臣 民 흥					
	㉚	君	님금	君	君	○	
	㉛	臣	臣	臣	臣	○	
	㉜	民	民	民	民	○	
	㉝	爲	흥-	흥-	흥-	○	
10		國惡 大平 恨音叱如 나라 太平 흥					
	㉞	國	나라	나라	나라	○	

㉓	太平	太平	太平	太平	○	
총 어절 : 37 文證된 어두: 33 미파악 어두: 4 [窟, 大, 所, 於]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33/37 = 89%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찬 기 파 랑 가	1		咽鳴爾處米 ● ●						
		①	咽鳴	音借열	音借열	목메 울		咽鳴 = 鳴咽?	
	2		露 曉邪隱 月羅理 난호 뉘 들						
		②	露	들어나	난호-	나담	○		
		③	曉	뉘-	音借토	살	○	曉 = 흰하	
		④	月	들	들	들	○		
	3		白雲音 逐于浮去隱 安支下 흰 구름 좃 떠가 ● ●						
		⑤	白	흰	흰	흰	○		
		⑥	雲	구름	구름	구름	○		
		⑦	逐	좃-	좃-	좃-	○		
		⑧	浮去	떠가	떠가	떠가	○		
		⑨	安	어디	音借안	머슴		安 = 平安?	
		⑩	下	音借이	音借하	音借하		下 = 아래?	
	4		沙是八陵隱 汀理也中 모래 ● 나리						
		⑪	沙	모래	音借새	물개	○		
		⑫	汀	들굵	나리	물서리	○		
	5		耆郎矣 兒史 是史 藪邪 耆郎 즈 ● ●						
		⑬	耆郎	耆郎	耆郎	글머루	○		
		⑭	兒	짓	즈	좃	○		
		⑮	藪	訓借긱	音借슈	音借소		藪 = 솥?	
	6		逸烏川理叱 磧惡希 ● 나리 작벼리						
		⑯	逸	音借일	音借일	音借일		逸烏 = 놀?	
		⑰	川	내	나리	나리	○		

	⑱	磧	작버리	지벽	조갈	○		
7		郎也 持以支如賜烏隱 郎 디니						
	⑲	郎	郎	郎	무르	○		
	⑳	持	디나-	디나-	디나-	○		
8		心未 際叱盼 逐內良齊 무슴 ㄱ 좇						
	㉑	心	무슴	무슴	무슴	○		
	㉒	際	ㄱ	ㄱ	ㄱ	○		
	㉓	逐	좇-	좇-	좇-	○		
	㉔	阿耶	阿耶	아으	아라	○		
9		栢史叱 枝次 高支 好 жат 가지 높 ●						
	㉕	栢	жат	жат	자시	○		
	㉖	枝	가지	가지	가지	○		
	㉗	高	놉-	놉-	크-	○		
	㉘	好	音借하	音借히	고비		好 = 돌?	
10		雪是 毛冬 乃乎尸 花判也 눈 ● ● ●						
	㉙	雪	눈	音借설	눈	○		
	㉚	花判	花判	花判	花判			
		총 어절 : 35 文證된 어두 : 25 미파악 어두 : 12 [咽鳴, 處, 安, 下, 八, 是, 藪, 逸, 好, 毛, 乃, 花判]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5/35 = 71%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처용가	1		東京 明期 月良 동경 북 들						
		①	東京	東京	시북	東京	○		
		②	明	북-	북-	북	○		
		③	月	들	들	들	○		
	2		夜 入伊 遊行如可 밤 들 노니						
		④	夜	밤	밤	밤	○		

		⑤	入	들-	들-	들-	○			
		⑥	遊行	노녀-	노녀-	노녀-	○			
	3		入良沙 寢矣 見昆 들 자리 보							
		⑦	入	들-	들-	들-	○			
		⑧	寢	자리	자리	잘	○			
		⑨	見	보-	보-	보-	○			
	4		脚烏伊 四是良羅 가를 네							
		⑩	脚	가를	가를	가로	○			
		⑪	四	네	네	넉	○			
	5		二躬隱 𣎵 下於叱古 둘ᄃᆞᆫ 내 해							
		⑫	二	둘	둘ᄃᆞᆫ	두블	○			
		⑬	𣎵	나	내	나	○			
	6		二躬隱 誰支 下焉古 둘ᄃᆞᆫ 닐 해							
		⑭	二	둘	둘ᄃᆞᆫ	두블	○			
		⑮	誰	누	닐	누기	○			
	7		本矣 𣎵 下是如馬於隱 본 내 해							
		⑯	本	민	본	본	○			
		⑰	𣎵	내	내	내	○			
	8		奪叱良乙 何如爲理古 앗 엇디ᄃᆞᆫ							
		⑱	奪	쌌앗	앗	앗	○			
⑲		何如	엇디	엇디	엇데	○				
⑳		爲	ᄃᆞ-	ᄃᆞ-	ᄃᆞ-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총 어절 : 22 文證된 어두 : 22 미파악 어두 : 0 </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2/22 = 100\%$ </td> </tr> </table>							총 어절 : 22 文證된 어두 : 22 미파악 어두 : 0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2/22 = 100\%$		
총 어절 : 22 文證된 어두 : 22 미파악 어두 : 0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2/22 = 100\%$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서 동 요	1		善化公主 主隱 善化公主 님						
		①	善化公主	善化公主	善化公主	善化公主	○		
		②	主	님[君]	님	님	○		

2	他 密只 嫁 良 置 古 남 그스기 얼 두								
	③	他	남	남	남	○			
	④	密	그스기	그스기	그스	○			
	⑤	嫁	얼-	얼-	얼-	○			
	⑥	置	두-	두-	두-	○			
	3	薯童 房乙 薯童 ●							
		⑦	薯童	薯童	맛등	막등	○		
		⑧	房	部屋住み	音借방	집	房 = 방 ²		
	4	夜 矣 卯乙 抱 遣 去 如 밤 알 안 가							
		⑨	夜	밤	밤	밤	○		
		⑩	卯	音借모	音借모	卯[알]	○ 卯乙 = 卯乙 = 알 <정우영, 2007>		
		⑪	抱	안-	안-	안-	○		
⑫		去	가-	가-	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총 어절 : 12</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11/12 = 92%</td> </tr> <tr> <td>文證된 어두 : 11</td> </tr> <tr> <td>미파악 어두 : 1[房]</td> </tr> </table>						총 어절 : 12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11/12 = 92%	文證된 어두 : 11	미파악 어두 : 1[房]
총 어절 : 12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11/12 = 92%								
文證된 어두 : 11									
미파악 어두 : 1[房]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도천수대비가	1	膝盼 古召拏 무릅 ●						
		①	膝	무릅	무릅	무릅	○	
	2	二尸 掌音 毛乎支內良 둘 손 ●						
		②	二	두	둘	두블	○	
		③	掌	손바당	숄바당	손바담	○	
	3	千手觀音叱 前良中 千手觀音 앞						
		④	千手觀音	千手觀音	千手觀音	千手觀音	○	
		⑤	前	앞	前	알	○	
	4	祈以支 白屋尸 置內乎多 비 슌 두						
		⑥	祈	빌-	빌-	빌-	○	

	⑦	白	슴	訓借슴	슴		白 = 슴
	⑧	置	두	두	두	○	
5		千隱 手叱 千隱 目盼 즈믄 손 즈믄 눈					
	⑨	千	즈믄	즈믄	즈믄	○	
	⑩	手	손	손	손	○	
	⑪	千	즈믄	즈믄	즈믄	○	
	⑫	目	눈	눈	눈	○	
6		一等 下叱 放 一等盼 除惡支 후든 해 놓 후든 덜					
	⑬	一	한	후든	후든	○	
	⑭	放	놓-	노후	놓-	○	
	⑮	一	한	후든	후든	○	
	⑯	除	버리-	덜-	덜-	○	
7		二 于萬隱 吾羅 둘 ● 나					
	⑰	二	두	둘	두불	○	
	⑱	吾	내	나	나	○	
8		一等沙隱 賜以古只 內乎叱等邪 후든 주시 ●					
	⑲	一	한	후든	후든	○	
	⑳	隱	音借ㄴ	그슴	넌죇		
	㉑	賜	주시-	音借△	音借시		賜 = 주시
		阿邪也					
	㉒	阿邪也	阿邪也	아으	아래	○	
9		吾良 遣知支 賜尸等焉 나 기티 주시					
	㉓	吾	나	나	내	○	
	㉔	遣	시티-	기티-	기디-	○	
	㉕	知	音借티	音借티	音借더		
	㉖	賜	音借사	音借사	주시-		賜 = 주시
10		放冬矣 用屋尸 慈悲也 根古 ● ㅅ 慈悲 불휘					
	㉗	放	놓-	노후	於의 誤		放 = 於?
	㉘	用	ㅅ-	ㅅ-	ㅅ-	○	
	㉙	慈悲	慈悲	慈悲	慈悲	○	
	㉚	根	音借근	音借근	恨의 誤		한자어

총 어절 : 33 文證된 어두 : 28 미파악 어두 : 5[古, 毛, 于, 乃, 放]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4/33 = 85\%$
---	--------------------------------------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풍요	1		來如 來如 來如 오 오 오					
		①	來	온	오-	오-	○	
		②	來	온	오-	오-	○	
	2	③	來	온	오-	오-	○	
			來如 哀反 多羅 오 섭 ●					
	4	④	來	온	오-	오-	○	
		⑤	哀	서러-	섭-	섭-	○	
	3		哀反 多 矣徒良 섭 ● 내					
		⑥	哀	서러-	섭-	섭-	○	
	4	⑦	徒	내	내	내	○	
			功德 修叱如良 來如 功德 닷 오					
		⑧	功德	功德	功德	功德	○	
		⑨	修	닥	닷-	닷-	○	
⑩		來	온	오-	오-	○		
			총 어절 : 12 文證된 어두 : 10 미파악 어두 : 2[多, 多]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10/12 = 83\%$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원왕생가	1		月下 伊 底 亦 들 ● ●					
		①	月	들	들	들	○	
	②	底	민	音借데	訓借어느제		底 = 민?	
2		西方 念丁 去賜里遣 西方 가						

	③	西方	西方	西方	西方	○	
	④	去	가-	가	가-	○	
3		無量壽佛 前乃 無量壽佛 前					
	⑤	無量壽佛	無量壽佛	無量壽佛	無量壽佛	○	
	⑥	前	앞	前	前	○	
4		惱叱古音 多 可 支 白 遣賜立 ● ● ● ㅅ ㅅ					
	⑦	腦	音借뇌	音借니	뇌웃		腦 = 苦惱?
	⑧	多	音借다	音借다	하		多 = 하?
	⑨	可	音借가	音借가	訓借안직		可 = 可히?
	⑩	白	ㅅ	ㅅ	ㅅ	○	
5		誓音 深史隱 尊衣希 仰支 다딤 김 尊 울월					
	⑪	誓	셈	다딤	다디	○	
	⑫	深	김-	김-	김-	○	
	⑬	尊	尊	尊	尊	○	
	⑭	仰	울위-	울월-	울월-	○	
6		兩手 集刀 花乎 白良 두손 ㄹ ● ●					
	⑮	兩	두	두	두블	○	
	⑯	手	손	손	손	○	
	⑰	集	ㄹ	ㄹ	ㄹ	○	
	⑱	花	音借와	音借ㅎ	訓借골		花 = 꽃?
	⑲	白	ㅅ	訓借ㅅ	ㅅ		白 = ㅅ?
7		願往生 願往生 願往生 願往生					
	⑳	願往生	願往生	願往生	願往生	○	
	㉑	願往生	願往生	願往生	願往生	○	
8		慕人 有如 白遣賜立 그리 사람 잇 ㅅ					
	㉒	慕	그리-	그리-	그리-	○	
	㉓	人	사람	사람	이	○	
	㉔	有	잇-	잇-	잇-	○	
	㉕	白	ㅅ	ㅅ	ㅅ	○	
		阿邪					
	㉖		阿邪	아으	아라	○	

9		此身遺也置遣 이 몸 길 두						
	㉗	此	이	이	이	○		
	㉘	身	몸	몸	몸	○		
	㉙	遺	音借그	길-	부리-	○		
	㉚	置	두	두-	두-	○		
	10		四十八大願 成遣賜去 四十八大願 일					
		㉛	四十八大願	四十八大願	四十八大願	四十八大願	○	
		㉜	成	닐우-	일-	일우-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총 어절 : 31 文證된 어두 : 24 미파악 어두 : 7[伊, 底, 惱, 多, 可, 花, 白] </div>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4/31 = 77%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도 솔 가	1		今日 此矣 散花 唱良 今日 이 散花 불					
		①	今日	오늘	오늘	오늘	○	
		②	此	이	이	이	○	
		③	散花	散花	散花	散花	○	
	④	唱	불-	불-	불-	○		
	2		巴寶白乎隱 花良 汝隱 ● 꽃 너					
		⑤	花	꽃	꽃	골	○	
		⑥	汝	너	너	너희	○	
	3		直等隱 心音矣 命叱 使以惡只 곧 무숨 命 브리					
		⑦	直	곧-	곧-	곧-	○	
		⑧	心	무숨	무숨	무숨	○	
		⑨	命	命	命	命	○	
	⑩	使	바리-	브리-	브리-	○		
	4		彌勒座主 陪立羅良 彌勒座主 뵈					
		⑪	彌勒座主	彌勒座主	彌勒座主	彌勒座主	○	
		⑫	倍	뵈-	뵈-	모리-	○	

총 어절 : 13 文證된 어두 : 12 미파악 어두 : [巴寶]	語頭의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12/13 = 92\%$
---	--------------------------------------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제 망 매 가	1		生死路隱 生死路						
		①	生死路	生死길	生死路는	生死길	○		
	2		此矣 有 阿米 次 旃伊遣 이 잇 ●						
		②	此	이	이	이	○		
		③	有	잇-	잇-	잇-	○		
		④	次	音借저	音借저	音借저		次 = 멈홀? (서재극, 1975)	
	3		吾隱 去內如 辭叱都 나 가 말						
		⑤	吾	나	나	나	○		
		⑥	去	가-	가-	가-	○		
	4		毛如 云遣 去內尼叱古 ● 니루 가						
		⑧	云	일으-	니루	니루-	○		
		⑨	去	가	가	가	○		
	5		於內 秋察 早隱 風未 ● 그슬 이른 부름						
		⑩	秋	그슬	그슬	그슬	○		
		⑪	早	이른	이른	이른	○		
	6		此矣 彼矣 浮良 落尸 葉如 이 더 떠 디 님						
		⑬	此	이	이	이	○		
		⑭	彼	더	더	더	○		
⑮		浮	떠-	떠-	불-	○			
⑯		落	디-	디-	디-	○			
7		一等隱 枝良 出古 후든 가지 나							
	⑰	一	한	후든	후든	○			

8	⑰	枝	가지	갓	가	○			
	⑱	出	나	나	나	○			
			去奴隱處 毛冬乎丁 가 곳 ●						
	⑳	去	가	가	가	○			
	㉑	處	곳	곳	곳	○			
			阿也						
	㉓	阿也	阿也	아으	아라	○			
	9			彌陀刹良 逢乎 吾 彌陀刹 맛보 나					
		㉔	彌陀刹	彌陀刹	彌陀刹	彌陀刹	○		
		㉕	逢	맛나	맛보	맛보-	○		
		㉖	吾	나	내	나	○		
	10			道 修良 待是古如 道 닷 기다리					
		㉗	道	道	道	道	○		
		㉘	修	닥	닷	두슬-	○		
		㉙	待	기다리-	기드리-	기드리-	○		
			총 어절 : 32 文證된 어두 : 28 미파악 어두 : 4[次, 毛, 於, 毛]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8/32 = 88%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해성 가	1			舊理 東戶 汀叱 네 東 물긔					
		①	舊	네	네	녀리	○		
		②	東	東	식	서	○		
		③	汀	물긔	몹긔	물서리	○		
	2			乾達婆矣 遊烏隱 城叱盼良 望良古 乾達婆 놀 잣 바라					
		④	乾達婆	乾達婆	乾達婆	乾達婆	○		
		⑤	遊	놀	놀	놀	○		
		⑥	城	잣	잣	자시	○		
		⑦	望	바라	바라	바라	○		
	3			倭理叱 軍置 來叱多 에 軍 오					

	⑧	倭	예	예	와리	○	
	⑨	軍	軍	軍	軍	○	
	⑩	來	오-	오-	오-	○	
4		烽 燒邪隱 邊也 藪耶 烽 슨 ㄱ ●					
	⑪	烽	烽	燧	혜	○	
	⑫	燒	살-	스-	스-	○	
	⑬	邊	ㄱ	ㄱ	기시	○	
	⑭	藪	訓借긔	音借ㅅ	音借소		藪 = 슨 ²
5		三花矣 岳音 見賜烏尸 聞古 三花 오름 보 들					
	⑮	三花	三花	三花	三花	○	
	⑯	岳	오름	오름	오름	○	
	⑰	見	보-	보-	보-	○	
	⑱	聞	들-	들-	들-	○	
6		月置 八切爾 數於將來尸 波衣 들 ● ● ●					
	⑲	月	들	들	들	○	
	⑳	數	音借수	訓借헐	訓借헐		
7		道尸 掃尸 星利 望良古 길 쓸 별 바라					
	㉑	道	길	길	길	○	
	㉒	掃	쓸-	쓸-	쓸-	○	
	㉓	星	별	별	벼리	○	
	㉔	望	바라-	바라-	바라-	○	
8		彗星也 白反也 人是 有叱多 彗星 슨 시름 잇					
	㉕	彗星	彗星	彗星	彗星	○	
	㉖	白	스-	스-	스-	○	
	㉗	人	시름	시름	시름	○	
	㉘	有	잇-	잇-	잇-	○	
		後句					
	㉙	後句	後句	아으	아라	○	
9		達阿羅 浮去伊叱等邪 ● 떠가					
	㉚	浮去	떠가-	떠가-	떠가-	○	
10		此也友 物北所音叱 彗叱只 有叱故 이 ● 彗 잇					

③①	此	이	이	이	○	
③②	物北	訓借갓	音借물	音借물		物北 = 物叱? = 것
③③	棼	비	棼	슬	○	
③④	有	잇-	잇-	잇-	○	
총 어절 : 37 文證된 어두 : 31 미파악 어두 : [數, 八, 數, 波, 達, 物]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31/37 = 84%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원가	1		物叱 好支 栢史 것 돌 잣					
		①	物	訓借갓	音借물	訓借빏		物 = 것
		②	好	音借ㅎ	音借ㅎ	고비		好 = 돌
	2	③	栢	잣	잣	자시	○	
			秋察戶 不冬 爾屋支 墮米 그슬 안들 이울 디					
		④	秋	그슬	그슬	그슬	○	
	3	⑤	不	안들	안들	모들	○	
		⑥	墮	떠러디-	디-	디-	○	
			汝 於 多支 行齊 教因隱 너 ● ● 녀 이신					
	4	⑦	汝	녀	녀	녀	○	
		⑧	行	녀-	音借녀	나-	○	
			仰 頓隱 面矣 改衣賜乎隱 冬矣也 울월 조아리 닷 가시 ●					
		⑨	仰	울위-	울월-	울월-	○	
		⑩	頓	조을-	音借던	音借던		頓 = 조을(頓首)
		⑪	面	닷	닷	닷	○	
	5	⑫	改	고티-	音借겨	가시-	○	
		⑬	冬	音借들	音借디	音借디		冬 = 겨울?
		月羅理 影支 古理因 淵之叱 들 그림제 ● 못						
⑭		月	들	들	들	○		
⑮		影	그름자	그림제	그르머기	○		
5	⑯	古	音借고	네	音借고		正用字 가능성	
	⑰	淵	못	못	못	○		

6		行尸 浪阿叱 沙矣以支 如支 네 뉘겔 몰애 ●				
	⑱	行	녀-	네-	나-	○
	⑲	浪	音借랑	뉘겔	몰겔	○
	⑳	沙	모래	音借와	물기	沙 = 몰애
7		兒史沙叱 望阿乃 증 바라				
	㉑	兒	짓	증	즈시	○
	㉒	望	바라-	바라-	바라-	○
8		世理 都之叱 逸烏隱 第也 누리 ● ● ●				
	㉓	世	누리	누리	누리	○
	㉔	都	音借도	音借도	音借도	都 = 모들?
	㉕	逸	音借리	音借리	부리-	逸 = 니즐?
	㉖	第	音借제	音借데	音借데	第 = 登第?
	㉗	後句亡	後句亡	後句亡	後句亡	○
		총 어절 : 32 文證된 어두 : 26 미파악 어두 : 6[於, 多, 沙, 如, 逸, 第]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6/32 = 81%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우 적 가	1		自矣 心米 저 무슴					
		①	自	저	저	저	○	
		②	心	무슴	무슴	무슴	○	
	2		兒史 毛達只將來吞隱 日 증 ● 날					
		③	兒	짓	증	죇	○	
		④	日	해	날	날	○	
	3		遠鳥 逸○○ 過出知遣 멀 ● 디나					
		⑤	遠	멀-	멀-	멀-	○	
		⑥	逸	音借일	音借리	숨-	逸 = 한자?	
		⑦	過	디나	디나	남-	○	
		⑧	出	나	나	나	○	
		⑨	知	訓借아	音借치	音借디		

4		今呑 藪未 去 遣省如 연 습 가				
	⑩	今	연	연	이	○
	⑪	藪	습	音借수	듬	○
	⑫	去	가	가	가	○
5		但 非乎隱焉 破○主 오직 외 ●				
	⑬	但		오직	디문	○
	⑭	非	해독 않음	외-	외-	○
	⑮	破○主		破戒主	破戒主	
6		次弗 □史 內於都 還於尸 朗也 ● ● ● 들 ●				
	⑯	次		音借저	音借즈	
	⑰	□史	해독 않음	兒史(중)	兒史(중)	
	⑱	還		돌-	돌-	
	⑲	朗		音借려	音借라	
7		此 兵物叱沙 過乎 이 兵物 디나				
	⑳	此	이	이	이	○
	㉑	兵物	兵物	잠개	잠갓	○
	㉒	過	디나	디내-	넘-	○
8		好尸 曰沙也 內乎呑尼 동 날 ●				
	㉓	好	音借오	뎡ㅎ-	동-	○
	㉔	曰	말ㅎ기	날	날	○
		阿耶				
	㉕	阿耶	阿耶	아으	아래	○
9		唯只 伊 呑音之叱恨隱 瀟陵隱 오직 ● ● 瀟陵				
	㉖	唯	아기	오지	아기	○
	㉗	伊	音借이	音借이	音借이	
	㉘	呑	訓借저	訓借오	몸	
	㉙	瀟	善業	善	이들-	○
㉚	陵	訓借ㄴ		音借르	○	
10		安支 尙宅 都乎隱以多 ● ● ●				
	㉛	安	어니	音借안	音借안	安 = 平安?
	㉜	尙	높-	音借새	큰	尙宅 = 높은집?

㉔	宅	音借족	집	짓		
㉕	都	音借두	音借도	살-		
총 어절 : 33 文證된 어두 : 20 미파악 어두 : 13[毛達只, 逸, 破○主, 次弗, ○史 內於都, 朗, 內, 伊, 吾, 安, 尙宅, 都]				語頭의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0/33 = 61\%$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예 경 제 불 가	1		心未 筆留 무슴 분					
		①	心	무슴	무슴	무슴	○	
		②	筆	분	분	븐	○	
	2		慕呂白乎隱 仏体 前衣 그리 부터 앞					
		③	慕	그리-	그리-	그리-	○	
		④	仏体	부터	부터	부터	○	
	3		拜內乎隱 身萬隱 절 몸					
		⑥	拜	빌-	절-	절-	○	
		⑦	身	몸	몸	몸	○	
	4		法界 毛叱所只 至去良 法界 ● 날					
		⑧	法界	法界	法界	法界	○	
		⑨	至	날-	날-	니를-	○	
	5		塵塵馬洛 仏体叱 刹亦 塵塵 부터 刹					
		⑩	塵塵	塵塵	塵塵	塵塵	○	
		⑪	仏体	부터	부터	부터	○	
	6		刹刹每如 邀里白乎隱 刹刹 뒀					
		⑬	刹刹	刹刹	刹刹	刹刹	○	
		⑭	遙	미즐-	뒀시-	미주-	○	
	7		法界 滿賜隱 仏体 法界 츠 부터					
		⑮	法界	法界	法界	法界	○	

8	⑬	滿	ㅅ-	ㅅ-	ㅅ-	○		
	⑭	仏体	仏体	仏体	仏体	○		
	九世 盡良 礼爲白齊 九世 디오 절ㅎ							
	⑮	九世	九世	九世	九世	○		
	⑯	盡	다-	디오-	디르-	○		
	⑰	礼ㅎ	절ㅎ-	禮ㅎ-	禮ㅎ-	○		
	歎曰							
	⑱	歎曰	歎曰	아으	아라	○		
	身語意業无疲厭 身語意業无疲厭							
	9	⑲	身語意業无疲厭	身語意業无疲厭	身語意業无疲厭	身語意業无疲厭	○	
10	此良 夫作 沙毛叱等耶 이 브질 삼							
	⑳	此	이	이	이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총 어절 : 26 文證된 어두 : 25 미파악 어두 : 1[毛叱] </td> <td style="width: 50%;">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5/26 = 96\%$ </td> </tr> </table>							총 어절 : 26 文證된 어두 : 25 미파악 어두 : 1[毛叱]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5/26 = 96\%$
총 어절 : 26 文證된 어두 : 25 미파악 어두 : 1[毛叱]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5/26 = 96\%$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칭찬여래가	1	今日 部伊冬衣 오늘 준비						
		①	今日	오늘	오늘	오늘	○	
		②	部	늘	주비	주비	○	
	2	南无佛也 白孫 舌良衣 南无佛 슌 혀						
		③	南无佛	南无佛	南无佛	南无佛	○	
		④	白	스-	스-	스불-	○	
		⑤	舌	혀	혀	혀	○	
	3	无盡辯才叱 海等 无盡辯才 비들						
		⑥	无盡辯才	无盡辯才	无盡辯才	无盡辯才	○	
		⑦	海	비들	비들	비들	○	
	4	一念惡中 涌出去良 一念 솟나						
		⑧	一念	一念	一念	一念	○	

	⑨	湧出	숏으나	숏나	숏나	○	
5		塵塵 虛物叱 邀 呂白乎隱 塵塵 虛物 외					
	⑩	塵塵	塵塵	塵塵	塵塵	○	
	⑪	虛物	虛物	虛物	虛物	○	
	⑫	遙	맞-	외시-	미즈-	○	
6		功德叱 身乙 對爲白惡只 功德 身 對ㅎ					
	⑬	功德	功德	功德	功德	○	
	⑭	身	몸	身	身	○	
	⑮	對爲	對ㅎ-	對ㅎ-	對ㅎ-	○	
7		際 于萬隱 德海 昃 ㄱ ● 德海					
	⑯	際	ㄱ	ㄱ	訓借어음	○	
	⑰	德海	德海	德海	德海	○	
8		間 毛冬留 讚 伊白制 間 ● 기리					
	⑱	間王	間王	醫王	間王		
	⑲	讚	기리-	기리-	기리-	○	
	⑳	隔句	隔句	아으	아라	○	
9		必只 一毛叱 德置 비록 一毛 德					
	㉑	必	반뚜기	訓借비록	반뚜기	○	
	㉒	一毛	一毛	一毛	一毛	○	
	㉓	德	德	德	德	○	
10		毛等 盡良 白乎隱 乃兮 ● 디우 습 ●					
	㉔	盡	다	디우-	다라	○	
	㉕	白	습-	습-	습본	○	
		총 어절 : 29 文證된 어두 : 25 미파악 어두 : 4[于萬, 毛冬, 毛等, 乃]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5/29 = 86%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1		火條 執音馬 ● 잡					

광수공양가	①	火	火	불	불	○		
	②	條	箸	音借저	音借더			
	③	執	잡-	잡-	줍-	○		
	2	仏前 灯乙 直体良焉多衣 仏前 灯 고티						
		④	仏前	부터 얹	佛前	佛前	○	
		⑤	灯	등잔	燈	燈	○	
	3	灯炷隱 須彌也 灯炷 須彌						
		⑦	灯炷	등잔심지	灯炷	燈炷	○	
	4	灯油隱 大海 逸留去耶 灯油 大海 ●						
		⑨	灯油	등잔기름	灯油	灯油	○	
		⑩	大海	大海	大海	大海	○	
	5	手焉 法界 毛叱色只 爲拈 손 法界 ● ㅎ						
		⑪	手	손	손	손	○	
	6	手良每如 法叱 供乙留 손 法 供						
		⑬	手	손	손	손	○	
		⑭	法供	法供	法供	法供	○	
	7	法界 滿賜仁 仏体 法界 ㅈ 부터						
		⑮	法界	法界	法界	法界	○	
		⑯	滿	ㅈ-	ㅈ-	ㅈ-	○	
	8	仏仏 周物叱 供爲白制 仏仏 ● 物 供ㅎ						
		⑱	仏仏	佛佛	佛佛	佛佛	○	
		⑲	周	周物	音借도	온		周 = 두루
⑳		物	音借므		가지	○		
㉑	供爲	供ㅎ-	供ㅎ-	供ㅎ-	○			
	阿耶							
㉒	阿耶	阿耶	아으	아라	○			

9		法供沙叱 多奈 法供 하						
	㉓	法供	法供	法供	法供	○		
	㉔	多	많-	하-	하-	○		
10		伊於衣波 最勝供也 ● 最勝供						
	㉕	最勝供	最勝供	最勝供	最勝供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총 어절 : 29 文證된 어두 : 24 미파악 어두 : 5 [條, 逸, 毛叱, 周, 伊於衣波] </td> <td style="width: 50%;">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4/29 = 83\%$ </td> </tr> </table>							총 어절 : 29 文證된 어두 : 24 미파악 어두 : 5 [條, 逸, 毛叱, 周, 伊於衣波]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4/29 = 83\%$
총 어절 : 29 文證된 어두 : 24 미파악 어두 : 5 [條, 逸, 毛叱, 周, 伊於衣波]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4/29 = 83\%$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참회업장가	1		顛倒 逸耶 顛倒 ●					
		①	顛倒	걱구러디-	顛倒	顛倒	○	
	2		菩提 向焉 道乙 迷波 菩提 아으 길 입					
		②	菩提	菩提	菩提	菩提	○	
		③	向	아-	아으-	아라-	○	'앗, 아샤'
		④	道	길	길	길	○	
		⑤	迷	무-	입-	입-	○	
	3		造 將來臥乎隱 惡寸隱 징 모딜					
		⑥	造	징	징-	지스-	○	'밍기'
		⑦	惡	모딜-	모딜-	긋-	○	'아촌'
	4		法界 餘音玉只 出隱伊音叱如支 法界 남 나					
		⑧	法界	法界	法界	法界	○	
		⑨	餘	남가-	남-	남-	○	
		⑩	出	나	나	나	○	
5		惡寸習 落臥乎隱 三業 모딜 비훗 디 三業						
	⑪	惡	모딜-	모딜-	긋-	○		
	⑫	習	버룻	비훗	비호	○		
	⑬	落	다-	다-	音借락	○		
	⑭	三業	三業	三業	三業	○		

6		淨戒叱 主留 卜以支 乃遣只 淨戒 主 ● ●				
	⑮	淨戒	淨戒	淨戒	淨戒	○
	⑯	主	님	主	主	○
7		今日 部 頓部叱 懺悔 今日 주비 돈붓 懺悔				
	⑰	今日	오늘	오늘	오늘	○
	⑱	部	늘	주비	주비	○
	⑲	頓	頓	頓部	頓	○
	⑳	懺悔	懺悔	懺悔	懺悔	○
8		十方叱 仏体 闕遣只賜立 十方 부터 알				
	㉑	十方	十方	十方	十方	○
	㉒	仏体	부터	부터	부터	○
	㉓	落句	落句	아으	아라	○
9		衆生界盡我懺盡 衆生界盡我懺盡				
	㉔	衆生界盡我懺盡	衆生界盡 我懺盡	衆生界盡我 懺盡	衆生界盡我懺 盡	○
10		來際 永良 造物 捨齊 來際 길 造物 버리-				
	㉕	來際	來際	來際	來際	○
	㉖	永	길-	길-	길-	○
	㉗	造物	造物	造物	造物	○
	㉘	捨	버리-	捨	버리-	○
총 어절 : 32 文證된 어두 : 29 미파악 어두 : 3 [逸, 卜, 乃]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9/32 = 91%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1			迷悟 同体叱 迷悟 同体					
	①	迷悟 同体	迷悟 同体	迷悟 同体	迷悟 同体	迷悟 同体	○	
2			緣起叱 理良 尋只 見根 緣起 理 窺 보					

수 회 공 덕 가	2	緣起	緣起	緣起	緣起	○		
		理	다스리-	理	理	○		
		尋	좃-	좃-	좃즈	○		
		見	보	보	보	○		
		③ ④ ⑤						
	3	仏伊 衆生 毛叱所只 부터 衆生 ●						
		⑥	仏	부터	부터	佛	○	
		⑦	衆生	衆生	衆生	衆生	○	
	4	吾衣 身 不 喻仁 人 音 有 叱下呂 나 몸 안디 시름 잇						
		⑧	吾	나	나	나	○	
		⑨	身	몸	몸	몸	○	
		⑩	不	아닌	안디	모들	○	
		⑪	人	시름	늬	시름	○	
		⑫	有	잇-	잇-	잇-	○	
	5	修叱賜乙隱 頓部叱 吾衣 修叱孫丁 닻 돈붓 나 닻						
		⑬	修	닥-	닥-	다스리	○	
		⑭	頓	頓	頓部	돈	○	頓部叱 = 밭 김준영(1979), 김영만(1997)
		⑮	部			주비	○	
		⑯	吾	나	나	나	○	
	⑰	修	닥-	닥-	다스리-	○		
	6	得賜伊馬落 人米 无叱昆 얻 늬 없						
		⑱	得	얻-	얻-	얻-	○	
		⑲	人	시름	늬	시름	○	
	⑳	无	없-	없-	없-	○		
	7	於內 人衣 善陵等沙 ● 늬 善陵						
		㉑	人	시름	人	시름	○	
㉒		善	善陵	善	이들	○		
㉓	陵	音借ㄴ		音借ㄴ	○			
8	不冬 喜好尸 置乎理叱過 안들 깃 두							
	㉔	不	안들	안들	모들	○		
	㉕	喜	깃부-	깃-	깃그-	○		
㉖	置	두-	두-	두-	○			

		後句				
	㉗	後句	後句	아으	아라	○
9		伊羅 擬可 行等 ● ● 녀				
	㉘	擬	비기-	비기-	너기-	의
	㉙	行	녀-	녀-	니거-	○ 擬 = 한자
10		嫉妬叱 心音 至刀 來去 嫉妬 무슴 닐 올				
	㉚	嫉妬	嫉妬	嫉妬	嫉妬	○
	㉛	心	무슴	무슴	무슴	○
	㉜	至	닐-	닐-	니를-	○
	㉝	來	올-	올-	올-	○
		총 어절 : 34 文證된 어두 : 30 미파악 어두 : 4 [毛叱, 於內, 伊羅, 擬]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9/34 = 88%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청전법륜가	1		彼 仍反隱 더 ●					
		①	彼	더	더	더	○	
	2		法界 惡之叱 仏會 阿希 法界 仏會					
		②	法界	法界	法界	法界	○	
		③	仏會	佛會	佛會	佛會	○	
	3		吾焉 頓叱 進良只 나 돈붓 나					
		④	吾	나	나	나	○	
		⑤	頓	頓	또	모로기	○	頓部叱 = 皆 김준영(1979), 김영만(1997)
		⑥	進	들-	났-	나수-	○	
	4		法雨 乙 乞 白乎叱 等耶 法雨 빌					
		⑦	法雨	法雨	法雨	法雨	○	
		⑧	乞	빌-	빌-	빌-	○	
	5		无明土 深以 埋多 无明土 깊 물					

	⑨	无明土	無名土	無名土	無名土	○	
	⑩	深	깊-	깊-	깊-	○	
	⑪	埋	묻-	묻-	묻-	○	
6	煩惱熱 留煎將來出米 煩惱熱 다리 나						
	⑫	煩惱熱	煩惱熱	煩惱熱	煩惱熱	○	
	⑬	煎	다리-	다리-	달하-	○	'뫼가'
	⑭	出	내-	내-	내-	○	
7	善芽 毛冬長乙隱 善芽 ● 길						
	⑮	善芽	善芽	善芽	善芽	○	
	⑯	長	길-	길-	길-	○	
8	衆生 叱田乙潤只沙音也 衆生 밭 짓						
	⑰	衆生	衆生	衆生	衆生	○	
	⑱	田	밭	田	밭	○	
	⑲	潤	붙-	짓-	짓-	○	
	後言						
	⑳	後言	後言	아으	아라	○	
9	菩提 叱菓音烏乙反隱 菩提 여름 오을						
	㉑	菩提	菩提	菩提	菩提	○	
	㉒	菓	여름	여름	여름	○	
10	覺月 明斤秋察羅波處也 覺月 볍 𪎨 𪎨 ● ●						
	㉓	覺月	覺月	覺月	覺月	○	
	㉔	明	볶-	볶-	볶-	○	
	㉕	秋	𪎨	𪎨	𪎨	○	
	㉖	處	音借치	音借치	訓借들		
총 어절 : 30 文證된 어두 : 26 미파악 어두 : 4 [仍, 毛冬, 羅波, 處]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5/30 = 87\%$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1		皆 仏体 모든 부터					
		①	皆	므릇	한	모든		皆 = 모든

청불주세가	②	佝体	부터	부터	부터	○		
	2	必于 化緣 盡 動 賜隱乃 비록 化緣 다오 뉘						
		③	化緣	化緣	化緣	化緣	○	動 = 뉘
		④	盡	다오-	뉘-	뉘-	○	
	⑤	動	움족이-					
	3	手乙 寶非 鳴良爾 손 부비 올						
		⑥	手	손	손	손	○	
	⑦	鳴	울니-	訓借오	울-	○		
	4	世呂中 止以友 白乎等耶 누리 머물 슌						
		⑧	世	누리	누리	누리	○	
		⑨	止	머물-	머물-	머물-	○	
	⑩	白	訓借스	訓借스	스		白 = 슌	
	5	曉留 朝于萬 夜未 새벽 아츰 밤						
		⑪	曉	새벽	새배	새배	○	
		⑫	朝	아츰	아츰	아츰	○	
	⑬	夜	밤	밤	밤	○		
	6	向屋賜尸 朋 知良 闔尸也 이우 벌 알 ●						
		⑭	向	아	이우	아르	○	'앗, 아수'
		⑮	朋	벌	벌	벌	○	
		⑯	知	알-	알-	알-	○	
	⑰	闔	알-	音借세	音借서			
	7	伊知皆矣 爲米 ● 흥						
		⑱	知	訓借알	알-	알-		
8	道尸 迷反 群良 哀呂舌 길 입 물 슌							
	⑲	道	길	길	길	○		
	⑳	迷	와-	입-	입-	○		
	㉑	群	무리	물	물	○		
㉒	哀	스럼-	스	스-	○			
9	落句							
	㉓	落句	落句	아으	아라	○		
9	吾里 心音 水 清等 우리 무슴 물 뉘							

10	㉔	吾	우리	우리	우리	○	
	㉕	心	마슴	마슴	마슴	○	
	㉖	水	訓借음	물	물	○	
	㉗	淸	몹-	몹-	물ㄱ-	○	
	佛影 不冬 應爲 賜下 呂 佛影 안들 應후						
	㉘	佛影	佛影	佛影	佛影	○	
	㉙	不	안들	안들	모들	○	
	㉚	應爲	應후-	應후-	應후-	○	
	총 어절 : 33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31/33 = 94%				
	文證된 어두 : 31						
미파악 어두 : 2 [闊, 伊知]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상수 불학 가	1		我 仏体 우리 부터					
		①	我	우리	우리	우리	○	
		②	仏体	부터	부터	부터	○	
	2		皆 往焉 世 呂 修 將來賜留隱 모든 니거 누리 닷					
		③	皆	므릇	訓借니	訓借다		皆 = 모든
		④	往	가-	니거-	디나거-	○	
		⑤	世	누리	누리	누리	○	
	3	⑥	修	닥-	딛글-	다스리-	○	
			難行苦行叱 願乙 難行苦行 願					
		⑦	難行苦行	難行苦行	難行苦行	難行苦行	○	
	4	⑧	願	願	願	願	○	
			吾焉 頓部叱 逐好友伊音叱多 나 돈붓 좇					
		⑨	吾	나	나	나	○	
		⑩	頓	頓部	頓部	頓	주비	頓部叱 = 皆 김준영(1979), 김영만(1997)
	⑪	部						
	5	⑫	逐	좇-	좇-	좇-	○	
		身 靡只 碎良只 塵伊 去米 몸 ● 붓 드들 가						

	⑬	身	몸	몸	몸	○		
	⑭	靡	없-	音借미	音借미		靡 = 쓰러딜?	
	⑮	碎	부스러-	붓-	붓아디-	○		
	⑯	塵	듣글	드틀	드틀	○		
	⑰	去	가	가	가	○		
6	命乙 施好尸 歲史中置 命 施 ●							
	⑱	命	命	命	목숨	○		
	⑲	施	주-	施	무츨	○		
7	然叱皆 好尸 卜下里 그랏 흘 ●							
	㉑	然	訓借ㅅ	그랏	그럿	○		
8	皆 仏体置 然叱 爲賜隱 伊留兮 모든 부터 그랏 흐 ●							
	㉒	皆	므럿	한	모든		皆 = 모든	
	㉓	仏体	부터	부터	부터	○		
	㉔	然	訓借ㅅ	그랏	그럿	○		
	㉕	爲	흐-	흐-	흐-	○		
	城上人							
		城上人	城上人	아으	아라	○		
9	佛道 向隱 心下 佛道 아으 무슴							
	㉖	佛道	佛道	佛道	佛道	○		
	㉗	向	아-	이으-	이룬	○	'앗, 아샤'	
	㉘	心	무슴	무슴	무슴	○		
10	他道 不冬 斜良只 行齊 他道 안들 빗 녀							
	㉙	他道	他道	년길	녀느길	○		
	㉚	不	안들	인들	모들	○		
	㉛	斜	빗가-	빗-	비스-	○		
	㉜	行	녀-	녀-	나-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body> <tr> <td style="width: 50%;"> 총 어절 : 35 文證된 어두 : 31 미파악 어두 : 4 [靡, 歲, 卜, 伊] </td> <td style="width: 50%;">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31/35 = 89\%$ </td> </tr> </tbody> </table>							총 어절 : 35 文證된 어두 : 31 미파악 어두 : 4 [靡, 歲, 卜, 伊]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31/35 = 89\%$
총 어절 : 35 文證된 어두 : 31 미파악 어두 : 4 [靡, 歲, 卜, 伊]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31/35 = 89\%$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향 순 중 생 가	1		覺樹王焉 覺樹王					
		①	覺樹王	覺樹王	覺樹王	覺樹王	○	
	2		迷火隱乙 根中 沙音賜焉 逸良 입 불취 삼 이					
		②	迷		입	입	○	
		③	火	迷火	訓借불	訓借불	○	
		④	根	불취	불취	불취	○	
	3		大悲叱 水留 潤良只 大悲 물 젓					
		⑤	大悲	大悲	大悲	大悲	○	
		⑥	水	물	물	물	○	
	4	⑦	潤	붓-	젓-	저즈-	○	
			不冬 萎玉內乎留叱等耶 안들 이우					
	5	⑧	不	안들	안들	모들	○	
		⑨	萎	이울-	이우-	이블-	○	
	6		法界 居得 丘物叱 丘物叱 法界 ● ● ●					
		⑩	法界	法界	法界	法界	○	
		⑪	居	音借가	音借ㄱ	音借ㄱ		
		⑫	丘物	衆生	音借구물	音借구물		
	7	⑬	丘物	衆生	音借구물	音借구물		
			爲乙 吾置 同生同死 홀 나 同生同死					
⑭		吾	나	나	나	○		
8	⑮	同生同死	同生同死	同生同死	同生同死	○		
		念念相續无間斷 念念相續无間斷						
9	⑯	念念相續无間斷	念念相續 无間斷	念念相續无 間斷	念念相續无間 斷	○		
		仏体 爲尸如 敬叱 好叱等耶 부터 홀 敬 홀						
10	⑰	仏体	부터	부터	부터	○		
	⑱	敬	삼가	敬	敬	○		
11		打心						
	⑲	打心	打心	아으	아라	○		

9		衆生 安爲飛等 衆生 安호				
	㉔	衆生	衆生	衆生	衆生	○
	㉕	安爲	安호-	便安호-	安호-	○
10		仏体 頓叱 喜賜以留也 부터 돈붓 깃				
	㉖	仏体	부터	부터	부터	○
	㉗	頓	頓	音借ㅅ	모로깃	頓部叱 = 皆 김준영(1979), 김영만(1997)
	㉘	喜	깃부-	깃-	깃그-	○
		총 어절 : 28 文證된 어두 : 25 미파악 어두 : 3 [居得, 丘物叱, 丘物叱]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5/28 = 89%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보 개 회 향 가	1		皆 吾衣 修孫 모든 나 닷						
		①	皆	므룻	한	모든	○	皆 = 모든	
		②	吾	나	내	나	○		
		③	修	닥-	닷글-	다스리-	○		
	2			一切 善陵 頓部叱 廻良只 一切 善陵 돈붓 돌					
		④	一切	一切	一切	一切	○		
		⑤	善	善陵	善	이들-	○		
		⑥	陵		音借ㄴ	音借ㄴ			
		⑦	頓	頓部	頓部	頓	주비	頓部叱 = 皆 김준영(1979), 김영만(1997)	
		⑧	部						
	⑨	廻	돌-	도르히-	도르-	○			
	3			衆生叱 海惡中 衆生 바들					
		⑩	衆生	衆生	衆生	衆生	○		
		⑪	海	비를	비들	비들	○		
	4			迷反 群 无史 悟內去齊 입 물 없 알리					
		⑫	迷	외-	입-	입-	○		

	⑬	群	물	물	물	○	
	⑭	无	없-	없-	없-	○	
	⑮	悟	새닷-	알리-	씨-	○	
5		仏体叱 海等 成留焉 日尸恨 부터 바들 일 날					
	⑯	仏体	부터	부터	부터	○	
	⑰	海	바들	비들	비들	○	
	⑱	成	날-	일-	일-	○	
	⑲	日	날	날	날	○	
6		懺爲 如乎仁 惡寸 業置 懺후 모던 業					
	⑳	懺爲	懺후-	懺후-	懺후-	○	
	㉑	惡	모딜-	모딜-	긋-	○	
	㉒	業	業	業	業	○	
7		法性叱 宅阿叱 寶良 法性 宅 보비					
	㉓	法性	法性	法性	法性	○	
	㉔	宅	宅	집	짓	○	
	㉕	寶	寶	보비	寶	○	
8		舊留 然叱爲 事置耶 네 그랏후 일					
	㉖	舊	네	네	녀리	○	
	㉗	然	訓借소	그랏-	그랏-	○	
	㉘	事	일	音借사	音借시	○	
	㉙	病吟					
		病吟	病吟	아으	아라	○	
9		礼爲白孫隱 仏体刀 절후 부터					
	㉚	礼爲	절후-	禮후-	禮후-	○	
	㉛	仏体	부터	부터	부터	○	
10		吾衣 身 伊波 人 有叱下呂 나 몸 ● 늬 잇					
	㉜	吾	내	내	나	○	
	㉝	身	몸	몸	몸	○	
	㉞	人	사람	늬	늬	○	
	㉟	有	잇-	잇-	잇-	○	

총 어절 : 34 文證된 어두 : 33 미파악 어두 : 1[伊波]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33/34 = 97\%$
--	--------------------------------------

작품	句	번호	正用字	소창진평 [1929]	양주동 [1942]	유창균 [1994]	어두 파악	비고
총결무진가	1		生界 盡尸等隱 生界 다우					
		①	生界	生界	生界	生界	○	
		②	盡	다우-	다우-	다르-	○	
	2		吾衣 願 盡尸日 置仁伊而也 나 원 다우 날 도					
		③	吾	나	나	나	○	
		④	願	願	願	願	○	
		⑤	盡	다우-	다우-	다르-	○	
		⑥	日	날	날	날	○	
		⑦	置	音借도	音借두	두	○	
	3		衆生叱 邊衣 于音毛 重生 ㄱ ●					
		⑧	衆生	衆生	衆生	衆生	○	
		⑨	邊	ㄱ	音借ㄱ	ㄱ	○	
	4		際 毛冬留 願海伊過 ㄱ 모들 願海					
		⑩	際	ㄱ	ㄱ	ㄱ	○	
		⑪	願海	願海	願海	願海	○	
	5		此如 趣可 伊羅 行根 이 가 ● 녀					
		⑫	此	이	이	이	○	
		⑬	如	다이	다이	다	○	
		⑭	趣	나스가-	가-	든-	○	
	⑮	行	녀-	녀-	녀-	○		
6		向乎仁 所留 善陵 道也 아우 바 善陵 道						
	⑯	向	아-	아우-	알-	○	'알, 아샤'	
	⑰	善	善陵	善	이들-	○		
	⑱	陵		音借ㄴ	音借ㄴ	○		
⑲	道	道	길	길	○			

7		伊波 普賢行願 ● 普賢行願					
	㉔	普賢行願	普賢行願	普賢行願	普賢行願	○	
8		又都 仏体叱 事伊置耶 또 仏体 일					
	㉕	又	다시	또	또	○	
	㉖	仏体	부터	부터	부터	○	
	㉗	事	일	일	일	○	
	㉘		阿耶	아으	아야	○	
9		普賢叱 心音 阿于波 普賢 무슴 ●					
	㉙	普賢	普賢	普賢	普賢	○	
	㉚	心	무슴	무슴	무슴	○	
10		伊留叱 餘音良 他事 捨齊 ● 남 他事 捨					
	㉛	餘	남-	남-	남-	○	
	㉜	他事	달은 일	他事	녀느 일	○	
	㉝	捨	버리-	捨	버리-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60%;"> 총 어절 : 34 文證된 어두 : 29 미파악 어두 : 5 [于, 伊, 伊, 阿, 伊] </td> <td style="width: 40%;">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9/34 = 85\%$ </td> </tr> </table>						총 어절 : 34 文證된 어두 : 29 미파악 어두 : 5 [于, 伊, 伊, 阿, 伊]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9/34 = 85\%$
총 어절 : 34 文證된 어두 : 29 미파악 어두 : 5 [于, 伊, 伊, 阿, 伊]	語頭の 의미가 파악된 어절의 비율 $29/34 = 85\%$						

참·고·문·헌

- 강길운, 『향가신해독연구』, 학문사, 1995.
- 금기창, 『신라문학에 있어서의 향가론』, 태학사, 1993.
- 금택장삼랑(金澤庄三郎), 吏讀の研究(『朝鮮彙報』 1918년 4월호), 조선총독부, 1918.
- 김상억, 『향가』, 한국자유교육협회, 1974.
- 김선기, 『현대문학』 145-177집(「길쌈별 노래」 등 14편), 현대문학사, 1967-1969.
- 김영만, 석독구결 ‘皆叱’, ‘悉良’과 고려 향찰 ‘頓部叱’, ‘盡良’의 비교 고찰, 『구결연구2』 구결학회, 1997, 1~125면.
-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 김준영, 『향가문학』, 형설출판사, 1979.
- 남풍현, 『차자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1.
- 서재극, 『신라향가의 어휘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75.
- 소창진평(小倉進平), 『향가 및 이두의 연구』, 경성제대 법문학부, 1929.
-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
- 양주동, 『조선고가연구』, 박문서관, 1942.
- 양희철, 『고려향가연구』, 새문사, 1988.
- _____, 『삼국유사향가연구』, 태학사, 1997.
- 유창균, 『향가비해』, 형설출판사, 1994.
- 이 탁, 「향가신해독」, 『한글』 116, 한글학회, 1956, 3~50면.
- 점패방지진, (鮎貝房之進), 國文(方言俗字), 吏吐, 俗證造字, 俗音, 借訓字 (『朝鮮史講座』 제1~3호), 조선사학회, 1923, 203-213면.
- 정렬모, 『신라향가주해』, 북한: 국립출판사, 1954.
- _____, 『향가연구』, 북한: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 정병욱, 『증보판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83.
- 정연찬, 『향가의어문학적연구 - 향가해독일반』, 서강대인문과학연구소, 1972.
- 정창일, 『향가신연구』, 세종출판사, 1987.

- 지현영, 『향가여요신석』, 정음사, 1947.
최남희, 『고대국어형태론』, 1996.
최학선, 『향가연구』, 1985.
홍기문, 『고가요집』, 북한: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8.
_____, 『향가해석』, 북한: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6.
화경고전문학연구회 편, 『향가·고전소설관계 논저목록』, 황패강교수 정년퇴임기념, 단대출판부, 1993.

논문 투고일 : 2018. 10. 20 심사 완료일 : 2018. 11. 14 게재 확정일 : 2018. 11. 18

Abstract

The Centennial History of Interpretation of Hyangga:
Addressing the Understanding of the Hyangchal System and the
Discovery of Ancient Vocabulary

Park, Jaemin

This paper is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two methods of interpreting the hyangga genre that have been used in the last century. One focuses on understanding the hyangchal system, and the other on the amount of ancient terms that have been discovered. The hyangchal system, whose principles were discovered by Japanese scholars, consists of *uija*, which have semantic meanings, and *chaja*, which are only used for signifying sounds. This structure was understood perfectly from the beginning, which greatly influenced subsequent Korean scholarship. However, other aspects of the hyangchal system were misunderstood by some scholars in the 1970s and were applied incorrectly, causing confusions that still remain.

The discovery of archaic vocabulary based on the study of ancient documents is also investigated in this paper. Okura Sinpei, a pioneer in the interpretation of hyangga, made substantial contributions in the discovery of antiquated terms and properly interpreted 514 of them. Seven hundred and fifteen words were used in hyangga poems as a whole, and Okura interpreted up to 70 percent. Yang Judong continued this interpretation work, enlarging the literary review. He shed light on 568 ancient words in total, and his success ratio of interpretation was up to 80 percent.

I conclude this paper by discussing the trend of relevant studies conducted since the 1990s and their implications. There were 160 words that neither Okura Sinpei nor Yang Judong could interpret. Approximately sixty of them were successfully interpreted by subsequent scholars, but there remain unsolved expressions such as *gaerimi* in “*Mojukjirang-ga*,” *gochomyeo* in “*Dochoensudaebi-ga*,” and *gumuljil* in “*Hangsunjungaeng-ga*.” These 101 unsolved words represent the semantic territories of hyangga which still await interpretation by contemporary scholars.

Keywords

hyangga, hyangchal, Okura Sinpei, Yang Judong, uija, chaja